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88 1982년 11월 24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Wednesday, November 24, 1982

NOV 25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열전의 연속 태권 대회

30개도장 선수4백명, 부상 속출

지방선수들 두각 나타내

20일 캐나다한인태권도협회 주최로 열린 제5회 캐나다전국태권도 선수권대회는 10여명의 부상자가 속출되는등 열기와 혈전의 연속이었다. 3천여명의 관객과 캐나다전역의 30여도장에서 400여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대회에는 처녀출전한 도장의 신인 선수들이 대폭 두각을 내는등 많은 수확을 거두었다.

욕대학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대회는 낮12시에 시작, 블랙벨트 결승을 마지막으로 밤9시가 넘어 끝이났다.

대회 하이라이트인 블랙벨트 결승에서는, 선수권대회에 처음으로 출전한 사니아도장의 폴·윌리암선수가 지금까지 각종 대회를 휩쓸어온 몬트리얼 이종수도장의 H·와셔맨선수를 물리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국인 사범에게 태권도를 배운후 미시간호수의 미국국경근처 온타리오 남부 사니아지방에서 사니아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캐네디안노말·래핀사범은 30여 문하생을 이번대회에 출전시켜 블랙벨트조에서만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를 거두는 대수확을 올렸다.

대회도중 10여명의 부상선수가 속출했으나, 체육관측에서는 앰브랜스를 대기하고 부상선수들은 즉각 후송, 다행히 중상을 입은 선수는 없었다.

저녁7시부터 거행된 각조 결승중간마다 태권도사범들의 시범이 있었다. 태권도협회 회장인 서정길사범(7단)은 눈을 가리고 360도를 회전하며 공중격파시범을 보였고, 단검대련에서는 문하생의 실수로 턱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기치너에서 도장을 열고 있는 김용출사범은 품세시범과 함께 6방격파시범을 보였다. 특히 서정길도장 문하생인 조성배군은 8명을 뛰어넘어 2단옆차기로 송판을 깨는 절묘한 묘기를 보여 관중들의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이번대회에는 실업인협회(회장 차선경)의 후원을 받아 교민들의 각 소매상을 통해 대회홍보와 함께 티켓을 판매, 그 어느대회보다 많은 관중들이 모였다.

유단자(블랙벨트)결승전적은 다음과 같다.

▲라이트급-트레베·브라운(이종수도장)(승):아라미스·아르마니스(이태은도장)(패)

▲페더급-레워드·로이트·로이트(켄청도장)(승):잭리쉬·도산주(사니아도장)(패)

▲웰터급-짐·크라우드·오라이스(퀘벡·랑그로이스도장)(승):디니·니콜스(Sania도장)(패)

▲미들급-피에르·디그니올(이종수도장)(승):레이몬드·츄(박주삼도장)(패)

▲헤비급-폴·윌리암(Sarnia도장)(승):H. 와셔맨(이종수동장)(패)

캐나다한국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쥬니어부 결승전: 정명주군(손명수도장)이 김섭군(화랑)을 옆차기로 공격하고 있다. 이 경기에서 정군(우)이 김(좌)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정군은 각종 전국대회에 출전, 무려 15개이상의 금메달을 따냈으며 매우 진취적이고 학교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정군을 지도한 손명수사범이 말했다.

김득구선수에 조의금답지

토론토체육인들 $540전달

봄봄. 맨시니와의 대결중 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득구선수에게 조의금이 전혔다.

22일 캐나다체육인동우회(회장 전향립)는 540달러를 모금, 후배 김선수에게 보내달라고 본 토론토한국일보사에 전달했다.

체육인동우회의 정형택씨는 "선배 체육인으로서 김선수의 변을 보고선 있을 수 없어 작은 정성이나마 마련했다"고 말했다.

체육인동우회는 한국서 국가체전 이상 참가자, 또는 정규 체육대학졸업자들을 회원으로 한 친목단체이다.

본사는 라스베가스에서 김선수의 사고기사를 취재하고 23일 토론토에 들른 서울본사 사회부 김수종기자에게 전해 유가족에게 전달되도록 했다.

◆ 조의금기탁자 ◆
체육인동우회 $100
전향립 $20
김성택 $100
정형택 $100
원장호 $200
남성우 $20

한국학과 주최 강연겸 만찬

연사는 햄총장과 조성옥박사

토론토대학 한국학과 후원재단(이사장 윤여화)은 한국의 학술진흥재단 이사장인 조성옥박사와 토론토대학의 제임스·햄총장을 연사로 하는 디너를 겸한 강연회를 오는 1일 하오6시 토론토대학 하트하우스 이스트·커먼룸에서 갖는다.

전체 교민에 오픈되는 이번 모임은 한국학과 설치를 위해 적극협력해 주고 있는 학술진흥재단측에 토론토 교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보여줄수 있고 또한 최근 두번 한국을 방문, 한국고유의 전통문화와 높은 교육열에 감명을 받고 돌아온 햄총장의 인상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생각되므로 많은 교민들의 참석을 바란다고 23일 윤이사장이 말했다.

토론토한국학과 설치운동 현황을 돌아보기 위해 햄총장초청으로 토론토를 방문하는 조성옥이사장은 문교부차관및 충남대학 총장을 지냈다.

햄총장은 최근 서울대학교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 한국의 대학발전이란 주제로 강연을 가졌었다.

토론토대학교의 부총장, 문리과대학장, 동양학부부장등이 참가하는 이날 모임의 회비인 1인당 $20,00에는 비페식 디너및 한국학과 후원성금이 포함된다.

연락처는 윤여화 621-0323, 유형승 284-2448(R)및 이광민 274-8889.

원자로 제3기 시험가동 성공

(서울22일=연합)한국이 캐나다원자력공사(AEC)로부터 사들인 원자로 제3호기가 내년 2월중순 준공을 앞두고 21일 시험가동을 끝마쳤다.

76년1월에 착공한 제3호원자로는 완공되면 678,000KW의 발전용량을 갖게된다. 캐나다원자력공사는 이 원자로 부속장비및 천연우라늄연료까지 공급했다.

한국은 80년대말까지 7개의 원자로를 추가 도입, 모두 10개의 핵발전소를 가질 계획이다.

코리안·저널 10주년 파티

토론토교포 주간지 코리안·저널이 창간 10주년을 맞았다. 지난 20일 한인회관에서 가진 10주년 파티에서 유영린 발행인은 "사장이며 사환인 신문사 생활을 10년이나 해왔다"면서 앞으로 더욱 정진, 발전적인 신문상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명규 토론토 한국일보사장, 이상훈 토론토총영사를 비롯 50여명의 인사들이 모였다. 주간지인 코리안저널은 현존하는 교포지중에서는 역사가 가장 길다.

미국인 캐나다를 가장 신뢰

갤럽여론조사 결과

(도쿄-외신) 미국인은 캐나다를 가장 신뢰할수 있는 국가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도쿄의 요미우리신문의 의뢰로 갤럽회사가 미국성인 1,486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밝혀졌다.

지난9월에 실시한 이 여론조사에서는 또 어떤 국가가 가장 "믿을수 있는" 우방인가하는 질문에서는 일본이 10위를 차지, 미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인기는 하락했음이 드러났다.

지난해의 여론조사에서는 일본이 6위를 기록했었다.

시민권·영주권 취득 목적

위장결혼 강력단속

(LA지사)미연방이민국(INS)은 미국시민권및 영주권을 취득하기위해 위장결혼을 하는 사례가 최근들어 부쩍 늘어나자 이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고 17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이민국워싱턴본부의 한 고위관리에 의하면 이민국수사원들이 종래의 케이스별 개인적 수사차원을 넘어 조직적인 알선책과 그 조직망을 색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속대상은 수수료를 받고 가짜 출생증명서를 발급해주거나 위장결혼 1건당 3천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이를 알선해주는 일부 이민관계변호사를 비롯한 위법자들이라고 이민국수사관들은 지적했다.

위장결혼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수는 연간 수만명선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직업여성들이 상습적으로 위장결혼에 응해 이에 대한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민국직원들은 조금이라도 의심이 날 경우 인터뷰때 두명을 따로 심사해 각자의 진술이 일치하는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양로원건립기금을 위한 워커톤대회에서 최다금액, 최다스폰서를 얻어 상을 받은 인물들. 왼쪽부터 송병현(토론토대학 공대전기과 2학년), 이웅일(조지·브라운대학 그래픽·아트과), 김회삼(OK오토바디 사장), 박인순 워커톤대회장(토론토한인회장), 서혜석여사(한국노년회 간사), 조남유목사(대한교회), 정승찬(자비스고교 10학년: 정종섭씨 장남)및대회 참가 최연소자 서무경군(3살, 서동현씨 장남)과 부상으로 1대씩 받은 10스피드자전거.

19일밤 한인회관서 열린 워커톤시상식에서 박회장은 축사를 맡았다. 천중환양로원건립위원장은 자전거를 시상한 후 양로원건립에 따른 문제를 설명했다.

은하 보석
다이아몬드·순금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악세·결혼예물
귀국선물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오늘의 예금금리(11/18부터)

한인신용조합			
기 간	신용조합	오푸기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	10.5%		9.5%
90일	11%		10%
180일	11%	10.75%	10%
365일	11%	10.75%	10%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SUNLIFE
백 용 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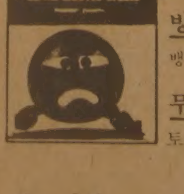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선미광고는 KBS 독점으로
직수입 1,000개 돌파!!
보다 알찬 프로그램과 밝은 화면으로 교육, 종교 문화, 사극, 현대극, 영화, 문학, 가요, 희극, 비극을 준비했읍니다.



VIDEO TAPE
3/4 ○BETA ○VHS
방송지원… 시카고
뱅쿠버 캘가리 에드몬톤
무료봉사
토론토 한인노인회 매주 1회
협조사항
선미광고 협의없이 무단 복제 영업하는 자가 있는 바 앞으로 단호한 의법조치할 것을 경고하며, 이런 업자를 신고하는 분께 300불을 드리겠읍니다.
미도파 3 FLOOR
454 BLOOR ST.W. TORONTO B.531-6430 R363-6523

<특별할인봉사>
모국 방문단 월 1회 단체출발
11월21일
12월26일
신세계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NEW WORLD TRAVEL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536-2155 · 2156
R) 492-7525 김 창범

DeWitt
JEWELS LIMITED
이달의 SPECIAL
1/4 carat Solitaire
Reg. $1000
Special $749

이태리산 Herringbone CHAIN SPECIAL
□16인치 $135
□18인치 $150
□20인치 $165

Assistant Manager
지니·장(Mrs. 장)
TORONTO EATON CENTRE
3RD LEVEL (MAIN FLOOR)
(EATON & SIMPSON사이)
☎ 979-9920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온』주 실업구제에 $1억5천만 방출

22.500개 새 일자리

온타리오주정부는 1억5천만달러를 투입, 22,500의 임시직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22일 프랭크·밀러재무상이 발표했다.

주정부의 신규 고용창출계획은 연방정부가 이미 보조를 약속한 1억3천만달러와 함께 적어도 4만명 정도의 온타리오주 실업자를 구제할 것으로 보인다.

밀러재무장관은 또 주의 고용상태가 내년3월까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내년봄의 예산에서 고용창출을 위해 추가 지출할 것임을 비쳤다.

밀러재무장관은 각 시정부도 경비를 삭감, 실업자 구제 예산을 책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도로및 하수도공사, 빌딩보수등의 공사비중 25%를 시정부가 부담하고, 관청하는 안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연방및 주정부의 예산액 총2억8천만달러로 이루어질 온타리오주의 직장창출 계획은 다음과 같다.

◆금년12월부터 온타리오주는 5천만달러를 들여 학교및 병원건물 보수공사를 시작, 7,500개의 임시직장을 창출하고, 실업보험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들의 훈련계획등에 충당한다.

◆온타리오주는 앞으로 18개월동안 연방정부의 지원금과 같은 금액인 1억달러를 건축, 에너지 보존, 조림및 기타사업에 풀어 3만개의 직장을 창출한다.

◆이밖에도 연방정부는 3천만달러를 온타리오주의 고용창출지원비로 지급한다.

허리띠로 목매죽은 40대 한인시체 발견

비즈니스 관계로 서울서 온 서용상씨(40)가 17일 상오8시 애틀란타 핫츠빌드공항 화장실에서 자신의 허리띠로 목매어 죽어있는 시체로 발견됐다.

82년도 정기총회 한인사격협회

25일(목) 하오7시, 캐나다 한인사격협회는 토론토의 동궁식당(1416 Victoria Park Av, Tor.)에서 82년도 정기총회를 연다.

이번 정기총회서는 새 회장단 선출과 아울러 지난 13일 실시한 사격대회 결과보고등의 안건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개업파티 26일 선장「제일식품」

토론토 한인상가의 교포식품점 「제일식품」(712 Bloor St. W. Tor.) 주인이 바뀌었다.

새 주인은 오석환씨(Tel: 622-5379)로 26일(금) 하오6시~8시 가게에서 개업파티를 연다.

경영주 오씨는 한인도매상 D.Y. Import Co. 오기환씨의 아우이다.

교민송년파티 김세레나출연

◆민요가수 김세레나

한국의 민요가수 김세레나가 출연하는 교민을 위한 82년도 송년파티가 오는 12월10일(금) 하오6시 다운타운 할리데이·인에서 개최된다.

토론토한인회가 주최하는 이번 파티에는 가수 김세레나 이외에 가수 김미리자와 「권순근과 그의 악단」이 특별출연하며, 입장료는 디너 포함 $25씩이다.

티켓은 각 한국식품점과 식당에서 판매한다.

파티장소인 다운타운 할리데이·인은 89 Chestnut St. 전화: 977-0707이다.

교민동정

◆임문호(비지네스)=미시사가 다운타운인 던다스×하이웨이 10에서 캐네디언 식당인 휴로니아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임씨는 겸업하고 있던 대일오디오·비디오회사를 확장했다.

40여개의 고급 음향시설 회사의 판매권(dealership)을 갖고 있는 대일오디오·비디오회사는 주로 고객의 필요와 경제력에 맞는 음향시설을 상담을 통해 주문해준다.

불황일수록 일반 전자제품기업은 재고에 자본이 묶여 업주들이 고전하게 되는 데 비해 기업운영경비를 최대한으로 절감, 가격면에서 소비자에 유리하도록 하는 기업방침을 쓰고 있다는 임씨의 전화번호는 270-0679, 279-3174.

사진대회 당선작 선정

칼러 130점, 슬라이드 24점 출품

지난 10월2일 거행된 제7회 사진대회는 양적·질적의 수준향상을 거두었으나 사진출품의 내용이 너무 단조로웠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중론이다.

오는 12월4일의 시상식을 앞두고 지난 12일 본사 회의실에 모인 심사위원들이 칼라부문의 총출품작 130점(28명)을 놓고 사전구성, 조리개, 노출상태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 1차로 34점을 낙선시켰다.

심사위원들은 1차예선에서 통과된 입선작 96점을 대상으로 세밀한 검토를 한 결과 특등 1점과 1, 2, 3등 그리고 가작 4점을 골랐다. 이번에는 주제를 「단풍과 한복미녀」로 했으나 주제에 맞춘 작품들은 사진 기술면에서 부족을 드러내 부득이 주제에서 약간 벗어났어도 사진기술을 중시, 특선작을 뽑았다.

이번대회는 칼라부문, 흑백부문, 슬라이드부문 의 3개부문으로 응모작품을 접수받았으나 흑백부문에는 전혀 응모작이 없었고 슬라이드 부문에는 24점(3명)이 출품되었으나 수준미달로 1작품만이 가작으로 뽑혔다. 이번 대회의 심사위원은 전경수 사진협회장, 김명규 토론토 한국일보사장을 비롯 이축길(전 한국일보 사진부장), 김명선, 임정재, 이기성씨등 7명이었다.

1차예선에서 통과한 입선작 96점은 사진협회 회원들이 지난 7월 록키산맥에서 찍은 사진작품들과 함께 오는 4일부터 1주일간 웨이사이드화랑(9185 영·스트릿 하이웨이7 북쪽)에서 전시된다.

4일 하오2시부터 전시회를 위한 리셉션이 열리며 3시부터는 당선작에 대한 시상식이 거행된다.

리셉션과 시상식에 참가자를 위해 주최측인 사진협회는 차량을 마련했다. 당일 1시30분 푸른색 밴차가 영·소트릿의 핀치지하철역 앞에서 출발한다.

◆130점의 출품작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는 심사위원들. 좌로부터 이기성, 이축길, 이인덕, 김명선, 전경수, 임정재씨.

「해병의 밤」 김용순무용단출현

토론토의 해병전우회(회장 남상현)는 12월18일(토) 하오6시 C.F.B. Toronto(킬×쉐퍼드)에서 망년회 「해병의 밤」을 연다. 회비 $15.

특별출연으로 정영수 태권도장의 시범과 김용순무용단과 "최영호와 그의 악단"이 출연한다.

연락처: 621-2059(송기선)

동우회연말잔치 캄보밴드 출연

동우회(회장 원영신)는 12월11일(토) 하오7시부터 새벽 1시까지 655 Dixon Rd. (× Hwy 27)의 Skyline Hotel에서 연말잔치를 연다.

경품등 푸짐한 선물을 곁들인 이날 잔치에는 캄보밴드가 출연, 흥을 돋운다.

(연락처: 745-5301 박진근)

문화인의 반려자

가정의 스트레스 무시못해

심장마비 사망 주말에 훨씬 많아

(미네소타주 로체스터) 주말에 가정에서 휴식을 기대하는 사람들에 놀라운 소식이 있다.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율은 주중보다 토요일날 훨씬 높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이같은 통계는 메요·클리닉사가 1950년부터 1975년사이에 있은 심장마비로 인한 급사건수 1,054건을 조사해 본 결과 밝혀졌다.

이 통계에 따르면 토요일 다음에는 일요일의 사망이 가장많고 금요일의 사망율이 가장 적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수·금에 사망률이 가장 많고 주말에는 가장 적다.

만약 스트레스가 심장마비의 가장 큰 요인으로 간주된다면 통계 결과는 가정에서의 스트레스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보다 훨씬 심하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4가구당 1대꼴 한국 칼러 TV보유

(서울23일=연합)한국은 4가구당 1대꼴로 칼러TV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공부가 23일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80년8월1일부터 칼러TV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판되기 시작하면서 부터 지난6월말까지 총2,089,000대가 팔렸는데, 이 숫자는 한국의 총가구수의 약25%에 해당된다.

또한 지난6월말 현재 냉장고 판매대수는 460만여대로 총가구수의 55%에 해당된다.

구독신청
533-2361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115>

金聖鍾作

29분의 1 ⑳

형사들은 한기수 만나기위해 회사로…

…그러니까 12월29일 아침 김반장과 마인은 회사로 한기수를 만나러갔다。사전에 전화도없이 불쑥 형사들이 나타나자 그는 퍽 당황하는 것 같았다。

『바쁜데 무슨일로그러십니까?』

형사들에게 자리를 권한 다음 의아한듯 그가 물었다。

마인은 침착하게 생긴 상대방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다。

『어제 저녁 댁에 갔다가 못만나고 돌아갔지요。』

김반장이 말했다。

『아、그랬던가요。우리집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던데…。』

마인은 고개를 갸우뚱했다。그리고 웃으며 말했다。

『걱정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랬겠지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차갑게 굳어있던 얼굴에 불안의 빛이 나타나고 있었다。

마인은 호화롭게 꾸며진 사무실을 휘둘러보았다。그리고 이런 곳에서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모세(毛世)라는 사람 아십니까?』

김반장이 물었다。한기수는 머리부터 저었다。

『모세요?모르겠는데요。그 사람이 누군데요?』

『우리도 몰라서 묻는겁니다。』

『왜 저한테 와서 그런 사람을 찾는겁니까?』

이 사람은 잠자리에서 아내한테 치이겠는데 하고 마인은생각했다。

『모세라는 이름의 사내가 살해되었지요。토막살인사건아시죠?』

눈이 커지면서 입도 벌어졌다。몹시 놀라는것 같았다。

『각역에서 토막이 발견된 사건말입니다。』

『네、알고있읍니다。그런데 그사건 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있기에…?』

다시 그의 얼굴에 짙은 의혹이 나타났다。

朴 男 그림

『우리는 무척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읍니다。』

『네、그런줄 압니다만 어째서 여기까지 오시게 됐는지?』

『글쎄、어떻게 설명을 드려야할지。아뭏든 관계가 없으면 좋습니다。수고스럽지만 우리와 함께 좀 가주시겠읍니까?』

한기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연행하시겠다면 응할 수 없읍니다。』

『연행이 아닙니다。협조해달라는겁니다。어디까지나 협조해달라는겁니다。』

김반장은 정중히 말했다。

『협조해드릴 수 없읍니다。난 지금 매우 바쁩니다。』

『알고 있읍니다。부탁합니다。우리 같은 사람의 고충을 이해해주신다는뜻에서협조해주십시오。』

『도대체 내가 그 사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그가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다。

『관계가 있고 없고는 금방 밝혀집니다。협조해주십시오。』

한기수는 깊이 생각해보다가 몇군데 전화를 걸고나서 일어섰다。

형사들은 한기수의 승용차에 동승했다。

차가 출발한후 5분쯤 지나 마인은 지나가는 투로 슬쩍 질문을 던졌다。

『이옥자씨라고 아십니까?』

밖으로 시선을 던지고 있던 한기수는 마인쪽으로 머리를 획 돌렸다。

百聞이 不如一見!
와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한국식품이라면!
제일 식품
대세일

성숙과 결실의 황금계절, 교민 여러분 가정에 만복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본인이 「제일식품」을 인수, 시설·상품종목등 모든 것을 개선하여 최선의 봉사를 다짐하오니 자주 왕림하시어 많은 애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대표 오석환
☎ : 532-1054
◆개업파티 : 11월26일(토) 하오6시~8시까지
◇장 소 : 제일식품 내

맛도 제일
값도 제일
품질도 역시 제일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532-1054
CRISTIE 지하철이 가장 가까움
〈아리랑 식당옆〉

배우자에 婚外섹스허용 異色結婚생활

오픈·매리지 得과 失 (Open Marriage)

당사자들의 經驗談

오픈 메리지(open marriage), 세사람 또는 여러쌍의 부부들끼리의 공동결혼생활을 일컫는 이 용어가 생겨난지도 벌써 10여년전. 한동안 찬반의 대립속에서 TV의 토크쇼를 휩쓸었던 이 이색결혼생활이 이제는 그결산을 맞을 때가 되었다. 그동안 이 오픈 메리지에 과감히 뛰어들었던 많은 부부들이 이 결혼생활에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오픈 메리지를 경험한 부부들이 하는 이야기가 「후회스런 생활」이었다는 것. 이 용어가 나돌았을때부터 오픈 메리지란 소위 간통을 미화하기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 색다른 결혼생활에 기대를 건 사람들은 배우

여러쌍 夫婦끼리 공동생활 "自由로운 사랑"
무분별한 섹스 萬病通治될수 없음을 立證

▲두 커플의 오픈 메리지를 그린 영화의 한장면.

"후회스런 生活" 많은 破鏡속 "매우 즐거웠다" 贊成論者도

자에게 혼외섹스를 허용함으로써 그들의 결혼생활은 전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결과는 생각보다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덴버대학의 심리학교수 [illegible]박사는 『결혼생활이 개방되었건 폐쇄되었건간에 부부가 참기 가장 힘든 것은 자기 파트너가 새 애인이 생겼을때 느끼게 되는 질투심』이었다고 말한다. 아무리 개방적인 부부라하더라도 이 질투심만은 쉽게 해결하기 힘들었다는것. 이런 감정적 요인을 미처 생각치못한 것이 오픈 메리지를 실패로 몰아넣은 주요인이 되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전통적인 부부의 역할에서 오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 대안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경험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자.

케이스1:리차드. 그는 33세의 재즈피아니스트. 지난 2년동안 그는 오픈 메리지를 통해 동시에 두여자를 깊이 사랑하게되었다. 그러나 그는 날이 갈수록 두여자중의 한여자를 택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갖게되었다. 두여자중의 어느누구도 이런 이중관계를 원치않았기 때문. 고민끝에 그는 부인과 이혼을 하고 새애인과의 관계도 끝내고 말았다. 『절대로 이런일은 다시는 하지않겠다』고 맹세하는 그는 한사람을 사랑한다는 것도 어려운데 두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힘에 겨운 일이었다고 털어놓는다.

케이스2:배우인 데빗과 프린텐스 작가인 펨. 데빗이 자기 부인과의 결혼생활을 원만케하기위해 애인인 펨을 끌어들여 오픈 메리지를 시도한것. 데빗와 부인은 이미 펨과 안면이 있는 사이였고 서로 합의하에 오픈 메리지에 들어갔다. 그러나 결과는 부인과의 원만한 결혼생활은 커녕 부인과 이혼하고 펨과 재혼하게 되었다는것. 『나의 첫 오픈 메리지는 결혼생활의 끝장이었다』고 데빗은 이야기한다.

•

결혼생활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시도한 오픈 메리지가 오히려 결혼생활의 파탄을 가져오는 역효과를 내고 말았다는것. 덴버의 소셜워커인 존·마리나스는 『오픈 메리지는 파트너중의 하나라도 이 관계에 불만이 생길때는 이혼으로 끝나는 법』이라고 피집어 말한다.

케이스3:샌프란시스코에 사는 45세의 주부 버지니아와 그녀의 남편 짐. 그들은 23년간의 전통적인 원만한 결혼생활끝에 오픈 메리지에 들어갔다. 그들은 기존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오픈 메리지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혼외섹스에 대한 호기심에서 이를 결정한것. 상대자는 2년전에 친분이 있었던 또 다른 부부. 이 결혼생활에서 짐과 버지니아는 상대방 부부와 바꾸어서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 버지니아는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진 것으로해서 그들 결혼자체가 흔들렸느냐고 물었을때 강력히 부인했으나 『좀 혼란스러웠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때로는 자신이 낯선 사람과 쉽게 친할수 있었다는데에 대해서 기분이 좋았으나 때로는 겁나고 죄책감으로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그러나 그녀는 오픈 메리지를 다시 할 용의가 되어있다고 말하면서 『결혼생활을 위해서도 좋고 나를 위해서도 좋고 무엇보다도 재미있다』고 웃는다.

다른사람을 성적으로나 그외의 면에서 안다는 것은 즐거움이며 새로운 자유라고 기염을 토하는 찬성론자들이 있는반면, 오픈 메리지란 간통과 다를바가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오늘날 오픈 메리지가 미국땅에서 사라지고 있지는 않으나 위기에 처한 결혼생활을 치료하는 만병통치라는 생각은 착오임이 경험자들에 의해서 밝혀지고있다. 이에대해서 영박사는 오픈 메리지의 인기가 사라지고있는 주된 이유는 사람들이 무분별한 섹스의 즐거움보다는 부부간의 사랑의 약속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고있다.

〈스키상식〉

초보적 기술습득

박 경 택(한인스키협회장)

(2)초급기술

◉기초활강(Straight down hill)

스키는 한번 타본 스키어는 활강이란 말만 들어도 드릴을 느낀다. 그렇게 신나는 것이지만 초보자는 이것만 즐기다 보면 어려운 동작은 배우기 싫어진다.

직활강은 사면의 아래쪽을 향하여 똑바로 지쳐 내려가는 기술이며 모든 활강기술의 기본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피드에 익숙할 것과 활강중에 바란스 감각을 체득하는데 있다.

이로인해 체득된 지치는 감각과 여유있는 폼은 앞으로의 기술습득에 있어서 기초가된다.

직활강의 기본자세는 발바닥 전체로 스키를 균등하게 밟고 발목무릎을 약간 굽히고 상체는 힘을 빼고 가볍게 앞으로 숙인다.

양팔은 몸에서 떼고 팔굽은 약간 굽히며 폴을 잡은 손에 약간 힘을 주어 바란스를 잡는데 도움을 준다.

〈연습〉

1)평지에서 기본자세를 취한후 발목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한다.

2)완사면에서 연습하되 자연스럽게 정지가 될 수 있는 곳을 택한다.

3)스피드에 적응될 수 있게 상체는 전향자세를 유지하고 발목 무릎을 부드럽게 굴신한다.

4)지치면서 하중을 전후로 이동해 본다.

5)완만하고 변화있는 지형을 이동하여 실시한다.

〈주의〉

1)무릎이 스키위에서 이탈되지 않게 한다.

2)엉덩이를 뒤로 쑥 빼다거나 상체를 너무 앞으로 숙이는 것같은 자세가 되지않게 한다.(넘어지기 쉽다.)

3)반대로 배를 쑥 내미는 자세도 좋지않다.

4)어깨나 팔에 힘이 주어지지 않게 몸 전체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한다.(초보자는 몸에 힘을 주어 딱딱하게 하므로 몸은 부드럽고 유연하도록 한다.)

5)시선은 항상 진행목표 방향으로 될수 있는한 멀리 본다.

(2)스노우 플로우(Snow Plow)

Snow Plow는 원문 그대로 흰눈을 밖으로 밀어내는 듯한 기능적 작용을 한다.

앞의 기술들은 한두시간만 연습을 해도 괜찮겠지만 이 Snow Plow만은 장시간 착실히 연습해야 한다.

스키기술은 저속기술에서 고속기술로 단계적으로 습득한다. 스키를 신고 경사진 눈위에 서면 서자마자 바로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기 때문에 감속기술을 배워야 기술을 계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그 감속기술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 Snow Plow이다. 이 기술은 A자형으로 스키테일을 개각하여 사면을 밑으로 활행하는 기술이다.

기본자세는 양스키의 끄리를 벌려 발뒷굽으로 균등하게 안쪽 모서리(Inside Edge)를 바깥쪽으로 밀면서 무릎을 가볍게 펴며 상체는 직활강 자세를 유지한다.

팔에 힘을 빼고 몸의 균형 유지
스노우플로우 연습 아주 중요

스피드의 조절은 스키의 끄리(tail)를 벌리는 정도와 엣징(Edging)의 강약도로 조정한다.

〈연습〉

1)출발전에 폴로써 버티고 서서 테일을 개각하여 버린폴로 걷으면서 출발한다.

2)완만한 사면에서 무릎을 굽힌 직활강으로 출발하여 무릎을 서서히 펴면서 스키이의 Tail을 밀어 벌리어 Snow Plow한다.

3)무릎을 안쪽으로 굽히면서 강하게 엣징(Edging)하여 제동하고 정지하는 것도 연습한다.

〈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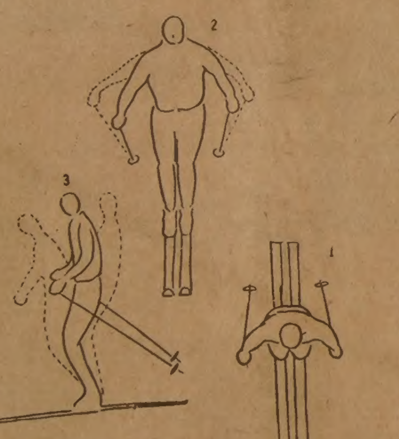
1)A자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스키선단이 벌어지거나 겹쳐지면 자기 동작에 이상이 있는 것이다.

2)양무릎을 심하게 안쪽으로 모아 X다리형이 되어서는 안된다.

3)발목만을 사용하여 엣징하여서는 안된다.

4)히프를 뒤로 빼서는 안된다.

5)허리를 너무 굽혀서는 전진방향을 보기도 힘들고 자세가 불안하게 된다.



◆직활강의 연습동작.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
김장김치 주문환영
•
해밀톤지점 ☎: 1-385-1485
서부지점 ☎: 243-9544

한국일보는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신문입니다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 532-0210 손병헌

운파 이정복
동양화 초대

홀로
오랜길을 걸어 온
그의 화풍 속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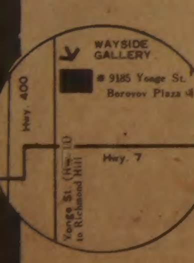
순수한 바위의 미학(美学)이
스며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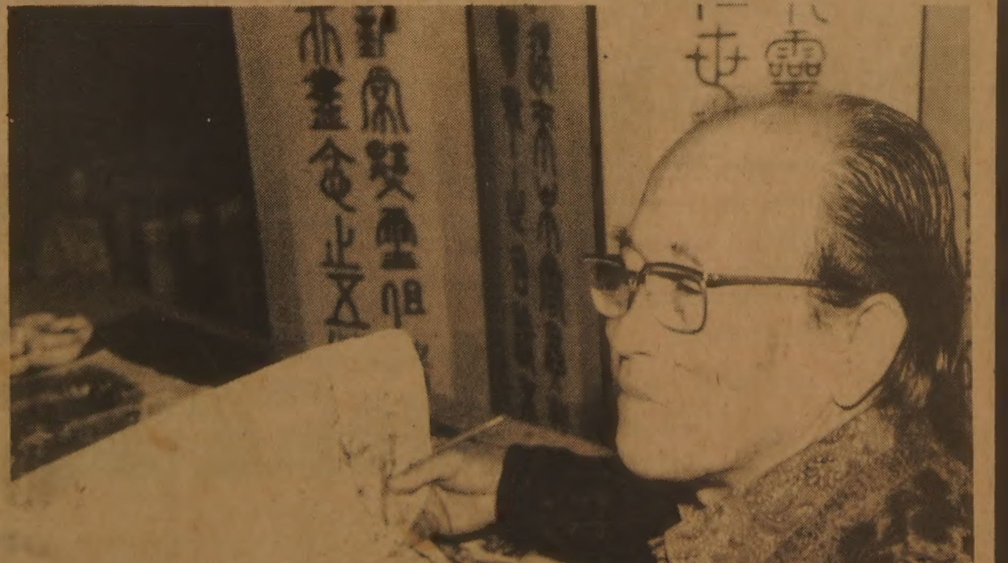
산은 가까우면서도 멀기에
그가
찾는 것은 형체가 아니라
그 산 소리

비어두었던
저녁연기 나는
동리(洞里)를 찾아 가는 길손.

□일 시: 11월26일부터 12월4일까지. 28일(일) 특별오픈(12시~6시)
□관람시간: 주중10시~6시(월.화.수.토) 주말10시~8시(목.금)
□리 셉 숀: 11월26일 오후7시
□장 소: WAYSIDE 갤러리(9185 YONGE ST.) TEL. 886-1667
□협 찬: 토론토한인회 서울대학농대 동창회
토론토한인회관 이전건립위원회 경기고등학교 동창회

주관: WAYSIDE 갤러리(길섶화랑)





한국일보

쌀 16% 增産한다

生長촉진 호르몬 트리아코타놀 實驗재배 성공

耐病·耐虫性도 뛰어나

배추등 밭作物은 60%나 增收

【水原=朴珍烈기자】 식물생장촉진 호르몬인 트리아콘타놀(Triacontanol)에 의한 녹색혁명이 한걸음 더다가왔다.

트리아콘타놀이 식물의 생육과 결실에 미치는 영향을실험해온 서울대농대 林雄圭박사는 그간 무우, 배추, 오이등 밭작물에서 큰효과를 본데이어 벼의 포장실험에서도 최고 16·6%의 수량증가효과가 나타났음을 확인, 19일 그결과를 발표했다. 林박사는 이같은 증수결과를 오는 24일 학계에 정식보고할 예정이며 전국 규모로 시험재배에 성공할경우 본격적인 보급이 가능할것으로 전망했다.

林박사팀은 지난2년간 트리아콘타놀에대한 실험결과 무우, 배추, 오이등 밭작물에서는 최고 60%이상의 증수효과를 확인했었다.

◇트리아콘타놀 처리를한 벼(右)는 가지수가 26개나 되는데 비해 기존벼(左)는 13개였고 이삭수도 같은 비례의 차이가 나고있다. 【金海雲기자】

벼에대한 실험은 지난4월 2일 수원235, 수원28 7, 수원294등 세품종을 파종, 6월7일 水原 서울大 농대 야외포장에 이앙했는데 1백평의 포장에서 일반농가의 재배법과 똑같이 재배를 한 이벼는 4반복, 4채리로 난괴법으로 실시됐다. 처리방법은대조구와염화칼슘5mM(mM은분자량단위) 10mM 15mM에다 농도10의 트리아콘타놀을섞어 이삭귀가 3~4일때인 5월2일과 7월13일, 7월29일등 세차례 이걸쳐 분무기로 살포했다. 농약은 일반벼의경우 수확기까지 8회정도뿌려야 하나 트리아콘타놀처리약은 3회만 살포했다.

지난10월17일 수확한 벼의 수확량을 계산한결과 수원235호의경우 염화칼슘5mM 처리분에서 16·6%, 수원287호의경우 10mM 분처리에서 16·2%의증수효과를 각각 확인했다. 이같은 증수효과는 트리아콘타놀처리결과 분얼수와 잎수가 늘어났고 뿌리의 흡수능력이 활발했는데 林교수는 트리아콘타놀과 염화칼슘의 협력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트리아콘타놀을 처리한 벼는 처리하지않은 벼에비해 내병성, 내충성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고 줄기가 튼튼해 도복도 거의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林박사에 의하면 트리아콘타놀로 처리한 벼의경우 생육기간동안 거의 병충해피해가 없는데비해 무처리한벼는 문고병과 도열병에 걸렸다는 것.

이같은 실험결과에 따라 林박사는 내년전국 1백여 농가에 트리아콘타놀처리방법을 소개해 농가실증실험을 거친뒤정부에 전면보급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林박사는 이미 트리아콘타놀을 밭작물에 적용, 노천재배결과 무우 1백8%, 토마토62%, 오이1백67%등의증수효과를 거뒀다.

한편 지금까지 세계에서유일하게 美國에서만 합성에성공했던 트리아콘타놀은 금년초 우리나라에서도 합성에성공, 값싸게 대량 공급할수 있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성공한 트리아콘타놀은 1천2백여평의 논에뿌릴경우 가격이 4백원정도로 쌀뿐아니라 사용방법도 극히 간단해 분무기로 뿌리기만 하면된다.

豫算 1백31억원 增額

豫決委 分科委別 심의끝내

국회豫決委는 19일로 새해예산안에대한 分科委別 심사를끝내고 오는22일 전체회의를소집, 計數조정 11인小委를구성한다.

예결위는 그동안 새해예산안에대한 분과위별 심의에서 총 52억5천1백만원(내무부제외)을 삭감키로 하는한편 1백31억5천3백만원을 증액키로했다.

제1分科委(위원장 李漢東의원)는 국무총리실 소관 예산중 제2정무 장관실의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 1억2천3백67만원을전액삭감키로하고 국회에서 제출한 IPU(국제의회연맹)총회준비금 12억원등 18억원의 예비금증액요청에 대해서는 미합의상태로 전체회의에 넘겼다.

또 법무부 청소년선도 및 民務事犯단속비 1천8백만원을 全額삭감하고 대통령실 소관, 비롯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체육부, 외무부, 국토통일원예산은 原案대로 채택했다.

제2分科委(위원장 丁時采의원)는 國史편찬위원회의 聽舍移轉사업비 9억6천만원을 내년도예산안에 반영키로하고 문교부의 자체예산안에서 조정키로 했다.

또 현행 件當 2만원의 國選변호료를 3만원으로 인상하고▲문공부의 국민의식개혁홍보비 9천9백77만원을 전액삭감▲총무처의 공무원 국내대학및 대학원 위탁교육금增額分 1억1천5백만원을 소額삭감▲國樂堂및 현대미술관 건립은 86아시안게임및 88올림픽때 우리의 전통문화를 소개한다는 뜻에서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이를 지원키로 합의 문교부의 청소년연맹지원 증액분 2억1천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營農방법 科學·기계화돼야"

全대통령, 增産王18명에 勳章수여

全斗煥대통령은 19일낮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청와대에서 金忠勳씨(忠北淸原)등 올해 增産王 18명을 접견하고 산업훈장등을 수여한뒤(사진) 오찬을 함께 하며 환담했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앞으로 우리의 營農과 營漁방법은 생산성향상을 위해 더욱 근대화되고 과학화, 기계화돼야한다」고 강조하고『增産王여러분들은 자신이 터득한 훌륭한 기술을 주변의 농민과 어민들에게 널리 전파해 우리의 농어민들 모두가 여러분처럼 훌륭한 수확을 거두도록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新聞·放送人과환담

全斗煥대통령은 19일 하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열린 제2회 전국 新聞·放送발행인및 편집·보도국장회의 리셉션에 참석, 환담을나눴다.

"政治발전 言論역할 중요"

李文公, 新聞·放送人회의서 강조

◇李振羲문공

李振羲문공장관은 19일오후 리의 시대상황에서 요구되는 언론기능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기능의 하나가 국민과 정부를 媒介하는것이라면 국민이 정부를 믿고 강력한 정부를 만들고 키우며 그가운데서 정치적안정과 정치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것은 오늘의 우리언론이 맡고나서야할 중대한 시대적召命」이라고 강조했다.

李장관은 이날하오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회 전국신문·방송발행인과 편집·보도국장회의에서 「국가와 언론」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우리정치문화에는 정치안정에 危害로운 몇가지 잘못된 믿음이 남아있는데 「弱한 정부가 민주정부」라는 믿음이 그한例」라고 지적, 「그러나 약한정부로서는 국가안보는물론 경제발전및 민주주의의 토착화등 세바퀴중그어느하나도제대로 굴릴수없는것」이라고말했다.

아시안게임 어제開幕

33개國 4천5백명 熱戰 16일

【뉴델리=한국신문공동취재단】이념과 종교, 인종을초월하여 아시아33개국 4천5백여선수가 참가한 제9회아시안게임이 19일하오6시반(한국시간) 뉴델리 네루스타디움에서 화려한 개막식과함께 막이올랐다.

이날 개막식은 자일·싱印度대통령의 입장으로 시작, 각국선수단이 힌두어 알파베트순서에따라 입장했으며 한국선수단은 方烈기수를 선두로북한 중공에앞서 8번째로 입장했다.

이어 아시안게임기가 게양되고 3발의 축포가터지는속에 2천마리의 비둘기, 5천개의 고무풍선이 뉴델리하늘을 수놓았다.

印度 여자중장거리선수 지타·슈지의 선수선서가 끝난후 선수단이 퇴장, 개막식을 마치고 이어 화려한공개행사를벌였다.

종합3위를 목표로 하고있는 한국선수단은 지난 11일 인도네시아에 이어 2번째로 뉴델리에 도착, 그동안 충분한 현지적응훈련을 쌓아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있다.

21개종목을 겨루는 이번대회는 19일 개막식에 앞서 상오9시 스포츠홀에서 남자탁구단체전을 스타트로 열전에 돌입, 12월4일 폐막된다.

◇한국 8번째로 入場 모의개회식에서 한국선수단이 方烈기수를 선두로 8번째로 입장하고 있다. 【뉴델리=聯合】

大宇가족 6社 1億1百萬원

独立紀念館건립 誠金

우리의 작은 精誠: 큰뜻 이루게

<19일접수>

◇金宇中씨

▲大宇가족6社=1억1백34만1천4백7원【(株)大宇해외기능공=3천9백62만4천7백66원 (株)大宇부산공장임직원=2천7백78만8천5백24원 大宇의료보험조합임직원=10만7천5백58원 원림산업(株)임직원=1천6백65만6천1백9원 고려피혁공업(株)임직원=1천26만7천7백42원 신아조선공업(株)임직원=4백44만6천5백8원 풍국정유공업(株)임직원=2백45만2백원】

在美시카고교민一同=美貨 5천9백80달러【시카고지사접수】

【정석화씨=1천1백달러 윤문상씨=1천〃 시카고실업인협회(회장 최선명)=1천〃 SUN시보테자동차(황정노)=5백〃 시카고무역관=4백〃 시카고금융단(외환·상업·제일은행지점)=3백〃 한국건축가협회 미주지부=2백30〃 화친회(회장 윤종복)=2백〃 이정빈총영사외직원一同=1백〃김창목씨=1백〃 그랜래피드한인회(정인하회장)=1백〃 심기영변호사=1백〃 허남석씨(시카고상공회의소장)=1백〃 민병철영어연구원장=1백〃 이수재씨(뉴월드사진관)=1백〃 김수권태권도장=50〃 서연화남매=1백〃 함성택박사=50〃 의사 서승환씨=2백〃 정보라박사=1백〃】

▲한국금속공업(株)김동건사장외 임직원一同=34만5천원【水原지사접수】

▲(株)하이훼숀상사 대표이사 박준식씨外 임직원一同=30만1천8백20원

▲在美토드십야드한인회一同=美貨4백21달러【로스앤젤레스지사접수】

▲在美나성순복음교회 이석영장로=美貨1백달러【〃】

▲在美샌퍼난드 밸리한인번영회一同=美貨 2백20달러【〃】

▲在美나성한인성서교회 한성욱씨외 一同=美貨3백달러【〃】

▲在美볼티모 실업인협회 김준성회장및 회원一同=美貨1천80달러【〃】

▲在사우디 리야드한국인학교 교직원6명 대표 원천웅씨외 학생(대표 신시범)105명=사우디貨1천3백리얄

▲在사우디담맘 한국인학교 교직원6명 대표 정정환씨외 학생(대표 강성화)75명=사우디貨2천1백7리얄

▲在튀니지 한인회(회장 홍은후)=美貨3백달러

▲在이디오피아한인一同(최상균씨, 이석구씨, 선우영씨, 유민철씨, 양기영씨)=美貨1백52달러

▲(株)仁川機械製作所 대표이사 張桂完씨외직원一同=20만원

▲東部경찰서동구의방범대장 박재남씨외 대원一同=3만원

▲仁川中區북성동1가98번지 김영민씨=1천6백80원【仁川지사접수】

在美 시카고 교민 一同 5천9백弗

볼티모어 실업인協 1천弗

한국금속공업(株) 34만원

(株)하이훼숀상사 30만원

토드십야드 한인회 4백弗

리야드·담맘한국학교 3천리알

社會漫評

亞洲경기 개막

地平線

그다니스크市에는 차가운 겨울이 찾아들고 있다. 3, 4년전만해도 그다니스크는 세계에 별로 알려지지않은 폴란드의 한 항구에 지나지않았다. 그 그다니스크를 일약 유명하게 만든것은 꽃수염을 멋있게 기른男노동자 레흐·바웬사였다. 바웬사를 지도자로한「솔리대리티」(連帶)자유노조운동이 그다니스크를 발상지로 해서 전국에번져, 그다니스크는 순식간에 폴란드사람들의 자유를 향한 상징적 중심이 되었다. 한때「솔리대리티」노조원은 약1천만명에 이르렀다. ▼작년 12월 야루젤스키군사정부가「솔리대리티」를 분쇄하기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바웬사는 구금되었다. 11개월만에 바웬사는갑자기 풀려났다. 바웬사가 손가방하나를 들고 허술한 차림으로 그다니스크로 돌아왔을때 시민들은 여전히 그를환영하였다. 그를 개선장군처럼 맞이했다는 외신보도다. 그다니스크시민들은 바웬사가 낯익은 꽃수염을 그대로 기르고있는데서「솔리대리티」자유노조운동의 상징성을 연상했을듯하다. ▼하지만 11개월의 國營생활은 일곱명의 자녀를 가진 바웬사에게 적어도 外樣的인 것일지라도 어떤 변화를 가져온듯하다. 꽃수염은 그대로였지만 좀 살이 쪄 있었다고 한다. 전송사진을 통해봐도 약간 뚱뚱해진 몸매를 느낄수있었다. 그다니스크市의 환영군중들은 바웬사가 차에서 내려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기를 기대했을는지 모른다. 하나 그와함께 내린 한神父는 그의팔짱을껴 호위하면서 서둘러 그를아파트로 안내해 갔다는 소식이다. 바웬사가「솔리대리티」지도자로 활약했을때였다면 설혹 누가 말리더라도 그는 車지붕에 올라서서 한바탕 열을뿜는 연설쯤 했을것이다. ▼39세의 바웬사는 그간 르샤바서 동남쪽으로 약3백20㎞ 떨어진 알라모보市에 감금되어 있었다. 지난10월 그 감방을 찾은 다누타부인이 혹시 메시지를 밖으로 가지고 나올것을 두려워해서 군사정부당국은 그부인의 알몸수색까지실시, 또한번 뉴스가됐었다. 감방생활중 바웬사에게 허용된 운동은 벽을향해 핑퐁을 치는 정도였다. 그러고보면 뚱뚱해진원인은 운동부족탓일지도 모른다. ▼석방된지 3일만에(15일)바웬사는 西方측기자들과 회견을했다. 그는『80년8월의 그다니스크협정은不滅』이라면서도『파괴에의한 政府와의 對決은 피하고싶다』고 말한것으로 보도되었다. 앞으로 할 역할에 대해서는『11개월동안에 고립상태에 놓였어서 좀 상황을 살펴봐야겠다』고 대답했다한다. 지금 그에게필요한것은 그다니스크의 봄을 기다리며 우선 자유를 위한 휴식을 취하는 일인것같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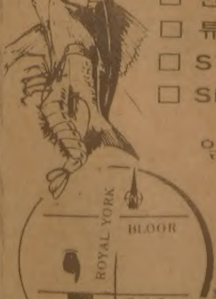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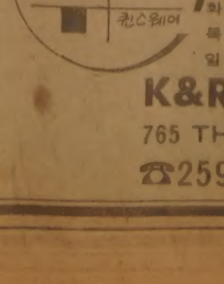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연말·연시 및 각종파티
고급횟감을 마련해 드립니다.
(파티TRAY는 3일전에 예약을 해 주십시오.)



□ 광어
□ 민어
□ 튜나
□ STRIPPED BASS
□ SEA, BASS
잊지않은 김장용
ㅁ생 동 태
ㅁ생 새 우
ㅁ물오징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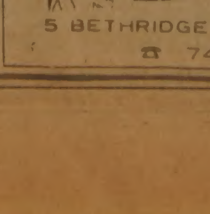


영업시간:
화·수·토 - 오전9시~오후6시
목·금 - 오전9시~오후8시
일·월 - 휴무
K&R Sea Food
765 THE QUEENSWAY
☎259-1585

오리엔탈·파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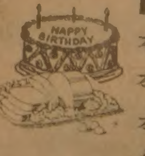
529 BLOOR ST. W. TOR.
533-3545 6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금.토.일 저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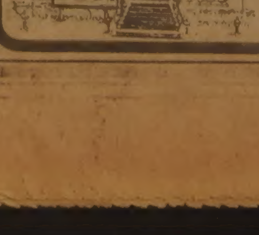
월 화 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HoneyHome BakeSh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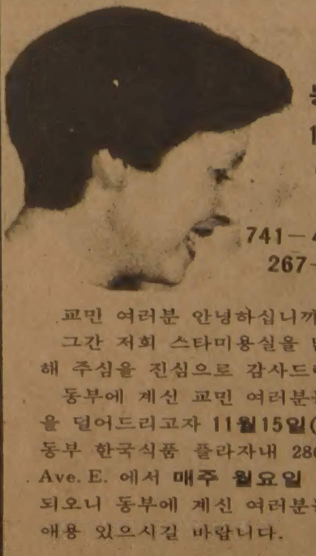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각종 파티용
샌드위치 TRAY
주문 받습니다.
☎ : 961-9780 MRS. 장
☎ : 536-1908(R)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장의사〉
중국인경영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721 Bloor St. W.
크리스티 써브웨이)
530-1222 Mr. 왕
536-6250 호세환



스타
미용실
동부영업
11월15일
(월)부터
예약전화
741-4410(평일)
267-0333(월)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저희 스타미용실을 많이 애용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부에 계신 교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11월15일(월) 부터 동부 한국식품 플라자내 2800 Eglinton Ave. E. 에서 매주 월요일 영업하게 되오니 동부에 계신 여러분들의 많은 애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동부영업시간 : 오전10시~오후7시
2800 Eglinton Ave. E.
(동부한국식품 플라자내)
※동부 예약은 미리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영업시간 : 화요일~토요일
오전9시~오후8시
2437 Finch Ave. W.

PLO內紛 심각

아라파트-시리아過激派 맞서

來週께 正面대결 예상

【베이루트AP=聯】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는지난 69년이래 PLO의장직을 맡아온 야세르·아라파트와 시리아의 지원을 받고있는 PLO과격파간의 권력다툼으로 심각한 內紛을 빚고있어 이들 쌍방간의 본격적 실력대결이 곧 벌어질것으로 18일 알려졌다.

PLO의 主流세력인 아라파트의 파타派와 시리아의지원을 받고있는과격파들인 팔레스타인解放인민전선(PFLP)、사이카派등간의 실력대결이 아마도 내주중 시리아수도 다마스커스에서 개최될 60人PLO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벌어질것이 예상되고 있다.

PLO정책결정기구인 이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원래 19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아라파트의 다마스커스도착과 관련한「안보상의 이유」로 연기되었다고 다마스커스의 소식통들이 말했다.

8개파벌로 구성된 PLO는 지난여름 레바논침공 이스라엘軍의 베이루트 포위로 약 7만5천~10만명의 PLO게릴라들과 팔레스타인인들이 베이루트에서 떠난이래 中東여러나라들에 분산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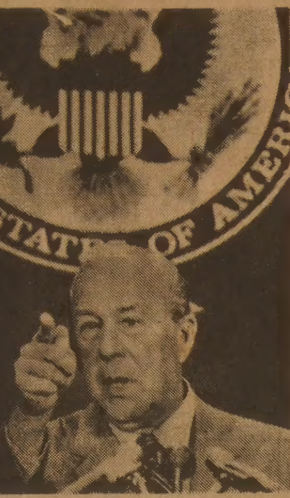
아라파트는 현재 튀니지에 본거지를 두고있으나 많은PLO게릴라들과급진파지도자들은 시리아에 집결해있다.

한 西方외교관은 시리아가 아라파트대신 새로운 인물이 PLO의장직을 맡게되기를 바라고 있는듯하다고말했다.

아라파트지지자들과 하페즈·아사드대통령의 시리아정부는 전반적 中東문제타결을 위한 협상의 개최시기를 둘러싸고 기본적으로 견해대립을 빚고있다.

시리아정부는 이스라엘과의 군사적 균형이 이뤄지기 앞서 中東평화회담을 개최하는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해왔다.

시리아정부는 특히 아라파트의 후세인 요르단왕과의 對話에 회의적 태도를 취하면서 후세인왕을 西方國들과 아랍국들간의 대화에서 아랍세계의 주요대변인의 역할을 맡게하자는 美國측제안을 거부해왔다.



◇기자회견하는 슐츠 조지·슐츠 美국무장관이 18일 국무성에서 기자들과 회견하고 있다. 【워싱턴18日AP電送=聯】

對蘇 신뢰구축提案

레이건、軍縮문제 22일 TV연설

【워싱턴UPI聯=聯】레이건美대통령은 오는22일 軍縮에 관한 전국TV연설을통해 미국과 새 소련지도부 사이의 신뢰구축을 겨냥한 몇가지 새로운 안들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美행정부관리들이 18일 밝혔다.

레이건 대통령의 이연설은 본디 브레즈네프 前소련공산당서기장의 사망전에 계획된 것이었으나 미국관리들은 이번 연설은 유리·안드로포프 새 소련공산당서기장에게 보내는 美蘇관계개선곡이 될것으로 보고있다.

미국관리들은 또 이번 연설은 레이건대통령이 군사력증강을 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對蘇핵군축회담을 계속 추구하고 우발적인 核전쟁위험성을 줄이기위한 노력을늦추지 않고있음을 전세계에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내다봤다.

오따 日慶應大新聞 연구소장

本社 洪발행인방문 歡談

일본 慶應대학교 신문연구소장 오오따·준따로(太田俊太郞·사진左)교수가 19일하오 본사를 방문, 洪惟善발행인과 환담을 나눴다. 본사 초청으로 내한한 오오따소장 부부는 4박5일의 일정을 마친뒤 오는 23일 귀국할 예정이다.

「自由의 女神像」 전면補修

골조부분 녹슬어 1년간 公開금지

뉴욕항입구에 서있는「자유의 여신상」의 골조부분이 녹이슬어 내년가을부터 2년예정으로 전면 보수공사를 받게됨에 따라 84년부터 길면 1년동안 관광객들에대한 공개가 금지될것 같다고 여신상을 관장하는 국립공원관리소가 발표.

관리소측은 일반 관광객들의 여신상 출입금지 기간을 가능한 줄이려고 하고있으나 1년정도는 출입이 금지될 것같다고 밝히고, 그러나 보수공사가 83년가을부터 시작되지만 관광객들은 84년들어 한동안은 출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

자유의 여신상 보수공사는 오는 86년의 건립1백주년을 맞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인데 레이건대통령은 지난5월 2천5백만달러의 보수공사비용을 모금하기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리·아이코카·크라이슬러회장을위촉했다. 【뉴욕=AP】

사업비 百44億 삭감키로

民韓 豫算대책논의

民韓黨은 22일상오 院內대책회의를열고 새해예산안의 削減규모와 레바논派兵문제、자원관리법안과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등 稅法처리문제및 기타 정치의안등의 처리대책을 논의했다.

民韓黨은 우선 정부의 새해예산안중 不要不急한 내년도 新規사업비 1백44억원을 우선삭감하고 내년도 歲出예산에 計上되지않고 84년예산을 앞당겨쓰는 國庫債務부담행위 8천8백96억원중 4백92억원도 삭감시킬 방침이다.

林鍾基총무는 19일『내년예산은 赤字이므로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은 1~2년뒤로 미뤄야 한다』면서 ▲서울師大移轉費40억원▲농가부업제품판매센터건립비30억원▲한국가스公社출자금40억원▲住岩댐건설비16억3천7백만원▲노동회관건립비8억1천8백만원▲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건립비 9억원등 1백43억5천만원은 우선 삭감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金鉉圭 民韓黨정책심의회의장겸 예결위간사는 내년도공무원의 처우개선을 물가상승률 5%에 맞추면 2백20억원정도 세출삭감이 가능하다고 지적、판공비 여비등을 금년수준으로 동결해야한다고 밝혔다.

新聞등 발행인회의

어제、世宗문화회관

제2회 전국신문·방송발행인및 편집·보도국장회의가 19일 상오 서울世宗문화회관 회의실에서 聯合通信주최로 열렸다.

本社來訪

▲金龍述씨(新韓投資金融사장) 田有相씨(동부사장)朴淳圭(〃) 開店人事次

對蘇 관계改善 바라

슐츠美국무장관 실질적 政策변화가 前題

【워싱턴=李文熙특파원】브레즈네프장례식에 참석하고 돌아온 조지·슐츠 美국무장관은 18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對蘇관계 개선을 위한「준비자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양국관계는 모스크바측의 실질적인 정책변화없이는 결코 개선될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슐츠장관은 또 크렘린의 새지도층이 美조문사절단을「매우 정중히」 접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보여준 對美유화제스처보다는 군비통제등 여러 현안에서의 실질적인 진전에 더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과 안드로포프와 만난자리에서 對蘇정상회담이 거론된적은 없다고 말했다.

金潤鎬 합참의장

美 공로훈장받아

金潤鎬합참의장이 지난 3월 실시된 팀스피리트82훈련에서 한미연합 지상구성군 통제단장으로 활약, 양국군 전력증강에 이바지한 공로로 19일 미국정부가 주는 공로훈장(리존·오브·메리트)을 받았다.

佛、아르헨에 武器수출 再開

포클랜드戰爭後 처음 미사일등 이미船積

【생나제르(프랑스)濟=聯】 프랑스는 18일 포클랜드群島 전쟁이후 처음으로 아르헨티나에 엑조세미사일과 쉬페르·에탕다르전폭기등을비롯한 무기수출을 재개했다고 프랑스의 생나제르港당국이 이날 밝혔다.

아르헨티나의 국영해운회사 소속 운송선 바이아·산·블라스號는 이날새벽 5대의 쉬페르·에탕다르전폭기및 數미상의 엑조세미사일등 약 2백t의 전쟁물자를싣고 생나제르港을떠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향했다.

프랑스와 西方동맹국들은 지난8월에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침공으로 단행된 對아르헨티나 禁輸조치를 해제한바 있다.

프랑스업계소식통들은 아르헨티나가 10대의 쉬페르·에탕다르전폭기를 구입했다고 말했으나 엑조세미사일제조업체인 아에로스파시알社는 아르헨티나에 판매된 엑조세미사일 수를 밝히기를거부했다.

시나이서 군사訓鍊

埃軍 67년이래처음

【와디·랄리스(이집트)濟=聯】 이집트軍은 지난67년 아랍·이스라엘戰이래 처음으로 18일 시나이반도에서『東쪽에있는 가상의 敵』을 상대로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군사훈련은 텔크헬리콥터 地對空미사일의 지원을받는 8백명의 보병기계화부대에의해 수에즈운하 東쪽 85㎞지점인 시나이반도『A지역』의 東쪽 국경부근에서 실시됐다.

작전을 지켜본 압델·할림·아부·가잘라 이집트국방상은 기자들에게『이번 훈련은 방어를위한 것이며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웃 나라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훈련이 이스라엘을 불쾌하게 만들것인가란 질문에 이스라엘정부에 직접들어보라고 대답했다.

英 派兵1백명水準

【매나마(바레인)=聯】한국등과함께 레바논정부로부터 파병요청을 받은 영국은 아직 파병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않고있으나 레바논정부의 요청에 응하더라도 파병규모는 1백명정도의 수준이 될것으로보인다고 쿠웨이트통신이 18일 런던발로 보도했다.

李 문공장관 연설要旨

정치현실주의에 입각해서 보건대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돼도 국가의 안전과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없다는 국민적 확신이 서고 강력한 정부에 의한 정치안정의 상황이 조성돼있을때 비로소 정치발전의한 형태로서의 평화적 정권교체가 가능해지는것이며 민주주의의 토착화도 그런바탕위에서 점진적으로 이룩될수 있는것이다.

지난날 우리는 강력한 정부와 강력한지도자를 同一視하여 강력한 지도자만 들어서면 강력한 정부는 자동적으로 뒤따라 온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강력한 정부에 대한 發想 그자체를 바꿔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강력한 정부와 정치안정은 물론 지도자의 리더십에도 크게 의존하지만 그 이상으로 국민이 이를 만들고 가꾸어 주는것이라는 관념으로 생각을 바꾸어야 하겠다.

민족역량을 응집해 音速돌파를 이룩함으로써 선진권에의 성공적인 진입을완결지어야 할 이 역사적 大轉換期에 그 어느 무엇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것은 조직체로서의 국민의 재발견이요, 각성이라 할 것이다. 이것을 시대의식의 再編成이라고 부르고자한다.

이 시대의식의 재편성에서 중심과제를 이루는것은 被治者로서의 국민이 아니라 주인으로서의 국민이요, 모래알처럼 흩어진 個體로서의 국민이아니라 조직체로서의 국민이요, 역사와나, 국가와나, 또는 정부와나를 떼어서보는 국민이 아니라 이를 하나로 보는 국민이다.

이시대정신의 재편성을 위한 작업이 먼저 정신적가치관에 대한 再照明으로 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을 통한 강력한 정신적 支柱의 마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로운 국민상을 정립하는 것이며, 새로운 국민상은 적극적 사고와 신뢰를 바탕으로 역사와 국가와 정부와 나를 동일선상에서 파악하는 조직체로서의 국민의식을 싣는 작업이라고 요약할수 있다.

記者의 눈

派兵과 輿論

레바논정부로부터 한국군파견요청소식이 전해졌을때 反論 우려와 함께 상당수의 국민들은「國威의 高揚」이라는면에서 긍정적인 견해를 조심스럽게 밝혔다.

이들은 과거越南戰과같이 전쟁하러가는게 아니라 治安평정을위한 保安官役이라면 그런대로 무방하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기도했다.

이미 레바논에 다국적평화군으로 참여하고있는 나라가 美佛伊등 소위 강대국들인데다 한국과함께 추가로 派兵요청을 받은나라도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등 서방선진국들 뿐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이들처럼 一流國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있구나 하는 자부심과 한국을 이들과同列로 고려해준 레바논정부의 탁월한 선택、어려운者의 도움요청을 거절하지않는 한국적인 인정미、그리고 越南戰때처럼 한국군의 우수성을 다시 돋보이고 싶은 과시감과 戰後 복구사업에의 참여라는 경제적잇점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은 시간의 흐름에따라 점차 신중을 넘어 부정적으로 변해가고있다.

즉 파병으로 얻게될 명분에 비해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측면에서 實利性이 적고 위험성이 높다는데로 기울고 있는것 같다.

첫째 군사적으로 북괴와 대치하고있는 우리실정에서 군대의 파견으로 안보상의 공백지대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65년 越南파병때 미국은「한국의 방위에확고책임」을 강조하며 화력 통신 기동력면에서 한국군현대화를 先行조건으로 제시했고 그밖에 派越에따른 입체의 경비부담을 포함한 경제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레바논派兵은 自國의 경비부담인데다 우리 국방의 허점을 보완할만한 대책이 보장되지않고있다.

또 외교적인 측면만 고려한다면 한국군派兵은 결코 得보다 失이 더많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數가 지배하고 있는 국제무대에서 요즈음엔 少數강대국보다는 多數의 비동맹그룹 입김이 더크게 작용하고 있다. 75년 리마非同盟회의에서 南北韓이 동시에 가입을 희망했으나 한국의 越南戰참전이「미국의 傭兵」으로 낙인찍혀 북한만 가입하고 한국은 그후 국제무대에서 惡戰苦鬪를면치못했다.

현재 아랍권을 포함한非동맹국가들은 한국군의 레바논파견에 소극적인 찬성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레바논의 치안회복 나아가주권과 영토보존에 협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레바논 주둔 한국군이 현지의 左右회교도들과 충돌이 생길 경우 전체 中東회교국에 끼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지에간 특파원들은 레바논에는 아직도 左右派간에 무력충돌이 일어나고있으며 이스라엘軍兵營이 폭발하는등 政情이 불안하다고 보도하고있다.

또 平和軍의 일부가 레바논에 주둔하고있는 이스라엘, 시리아, PLO軍의 철수지역에 치안을 담당하는 것인만큼 이들 外軍철수가 先行되지않는속에 한국군 파병은 禍를 자초하는 愚行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하고있다.

신중검토를 발표한 정부의 태도로 차갑게 얼어붙어있다.

정부로서는 뜻밖의 닥쳐진 외교宿題를 풀어야만한다. 이제 정부는 多角的검토와함께 어디까지나 국민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만할 것이다.

【李在武기자】

地球를 위협하는「酸性비」

「쓰레기의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다

遺蹟은삭고 湖水는 죽어가며 南極까지 오염

年5萬명희생… 일부선 "빗방울에 불이 붙는다"

그리스 고대건축물의 전형으로 손꼽히는 파르테논神殿은 금세기 들어 급속도로 삭아 부스러져 가고있다.

순백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인도의 타지마할은 누렇게 변색되고 있으며 스칸디나비아의 크고 작은 湖沼들은 하나 둘 죽음의 호수로 변하고있다.

원흉은 바로 산성비(酸性雨). 냄새도 맛도 없는 이 산성비는 인간이 그동안 이룩한 각종 문화유산들을 야금야금 침식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인간자신과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를 모조리 파멸로 이르게 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경고하고 있다.

산성비를 만드는 주범은 탄산가스, 아황산가스, 산화질소등을 대기중으로 쉬지않고 배출하는 자동차와 공장굴뚝들이다.

석탄, 석유등 化石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이 오염원들에게서 배출된 산성기체들은 대기중에서 탄산, 황산, 질산등 酸으로 화해 지상으로 되돌아 내려와 각종 피해를 낸다.

산성비에 의한 피해가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것은 지난65년.

미국 동북부지방의 호수에서 갑자기 물고기가 떼죽음을했다. 조사결과 호수물의 酸度가 거의 식초와 다름없을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근 공장지대에서 배출된 산성가스가 대기중에서 산성비로 화해 호수물을 산화시켰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지금, 산성비에 의한 피해는 자동차가 붐비고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업도시주변은 물론 알래스카에서 버뮤다, 심지어는 남극대륙에서까지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北美지역의 경우 매년 6천만톤의 오염물질이 대기중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어 인공위성사진을 찍어보면 이「쓰레기구름」이 1년내내 뿌옇게 北美상공을 덮고 있다.

최근 美의회산하의 한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성비등과 같은 유황오염의 영향으로 병을얻어 사망한 사람이 한해에 5만명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 보고서는 서기 2천년대에는 산성비에 의한 피해는 더욱 증가, 5만7천명가량이 희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브라질의 경우, 공장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커바타오지역은「죽음의 계곡」이란 별명으로 불리고 있으며 이지역 주민들은 빗방울에 불을 붙이면 불이 붙을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매일 1천여톤씩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커바타오지역상공에서는 무려 76종의 오염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는데 이지역주민들은 브라질내 다른지역보다 사망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도 마찬가지. 스코틀랜드의 삼림과 호수들의 병이 깊다. 50년대초 악명을 떨쳤던 런던의 스모그를 치료하기위해 건설했던 거대한 공장굴뚝들이 이제는 스코틀랜드쪽으로 아황산가스들을 날려보내고 있다는게 이지역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밖에도 공해없는 자연을 자랑했던 스웨덴, 노르웨이등 스칸디나비아반도국가들도 산성비의 피해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스웨덴은 4천여개의 호수가 전혀 생물이 살지못하는「죽음의 호수」로 변했고 1만8천여개의 호수도 서서히 죽어가고있으며 노르웨이도 비슷한 피해상황을 보이고있다.

◇3백50년동안 純白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인도의 대리석궁전 타지마할도 몇년전부터 산성비로 인해 누렇게 퇴색해가고있다.

특히 스칸디나비아반도는 산성비를 중화시킬 수있는 탄소나 석회석등 알칼리성 토양이 충분치 않기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가크다고 한다.

스칸디나비아 각국은 자국으로 공해물질을 수출하고 있는 이웃 공업국들을 비난하고있으나 아무런 제지도 받지않은채 바람을타고 국경을 넘어오는 쓰레기를 규제할 뚜렷한 해책이없어 발만 구르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면 산성비의 피해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것일까.

대기오염으로 인한 산성비의 피해를 가장 훌륭히 극복한 나라로 일본을 들수있다. 일본의 대기오염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60년대에 최고를 기록,「공해백화점」이라는 오명까지 얻기도 했다.

수은중독에 의한 미나마따병·카드뮴에 의한 이따이이따이병등 각종 공해병이 등장하면서 부터 경각심이 높아진 일본국민들은 대기오염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일본기업들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40억달러를 투입했으며 2만여개 기업체가 지방당국과 오염방지 협정을 체결하고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오염방지 시설을 갖춘 결과 일본자동차들의 산화질소 배출량은 10년전에 비해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그동안의 차량증가로인한 대기오염 효과를 상쇄시키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볼때 산성비에 대한 대책마련은 어느 한 지역이나 국가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제적인 협조에 의해서만이 달성될수 있다.

세계각국은 이미 지난 72년 스톡홀름에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환경기구(UNEP)를 설립하고 1백14개국의 이름으로「인간환경선언」을 채택했으나 어떤 구속력을 갖고있지는 않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엇갈린 각국입장으로 인해 뚜렷한 효과를 보지못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간에 문제가 되고있는 산성비를 둘러싼 다툼은 국제간의 협조가 얼마나 긴요한가 또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國境없는 大氣… 국제協調어려워 難題

주요도시들이 미국과의 국경 1백㎞이내에 밀집되어있어 시카고, 디트로이트등 미국북부 공업도시에서「발산」되는 오염물질의 사정거리안에 들어있는 캐나다는 미국에 대해「산성비수출」을 즉각 중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가해자인 미국측은 좀더 조사를 해보면서 조치를 취하자는 느긋한 입장.

캐나다측 주장에 따르면 연간 수천만톤의 美製오염물질이 북상기류를타고 캐나다로공수되어 온타리오부근의 1백40여개 호수가 깡그리 생명체가 전멸되었으며, 5만여개호수가 위험수위에 이르고있다는것이다.

미국정부는 과거 카터행정부때는 공해대책에 상당히 관심을 보였었으나 기업인들을 지지기반으로하고있는 레이건행정부가 등장한이후, 그다지 공해대책에 관심을 쏟지않는다는게 캐나다측의주장이다.

이같은 각국정부의 이해관계로 인해 국제적인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있는데대해 세계의 환경과학자들은 지난30년간 인류가 저지른 환경오염이 인류문명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이루어진것보다는 더욱 심각하다고 주장하면서 하루속히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다강력한 대책이 수립돼야한다고 촉구하고있다.

【朴永赫기자】

● 백학같이 우아한 미!
●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웨딩 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청첩장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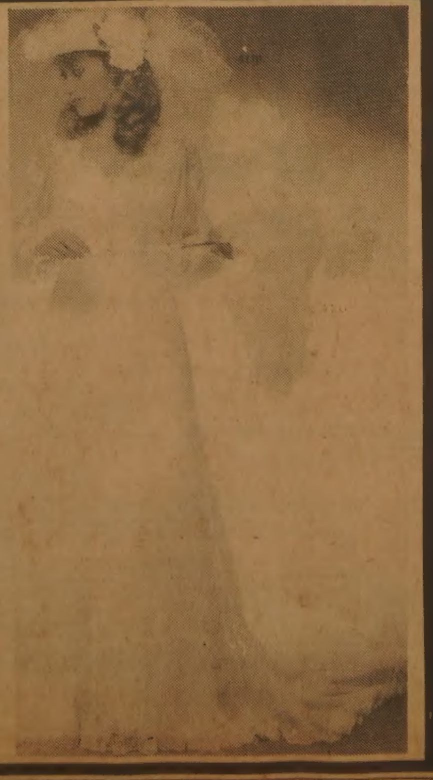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생애 최고의 순간들을 추억으로 담을 사진을 책임지고 촬영드리며 기타 결혼을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실비아·원

Eglinton
Bayview
Millw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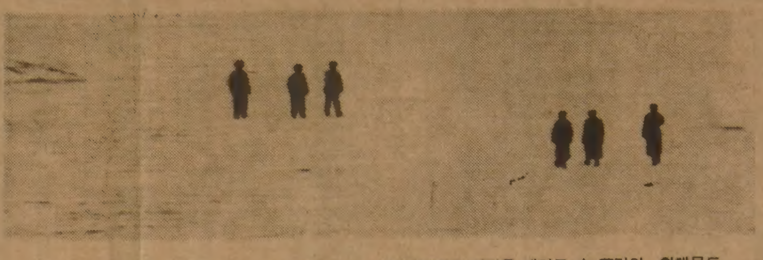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20년 中·蘇 冷却」풀릴 것인가

브 死亡계기 「和解」急進展…그 意味는

브레즈네프弔問사절로 파견된 中共外相 黃華를맞아 안드로포프서기장·그로미코外相간에 열린 회담은 거의 20년간 냉각돼 왔던 中·蘇관계를 정상화하는데 새로운계기가 될것이 틀림없다.



◇國境서 마주친 中·蘇병사 브레즈네프 사망을 계기로 中·蘇간의 화해무드가 급격히 무르익어가고 있다. 지난69년 국경분쟁이 일어난후 어느날 눈덮인 우수리江에서 마주친 두나라 병사들。이들의 긴장은 과연 해소될것인지。【外誌】

蘇의「장애要素제거」示唆에

「政治對話」로 妥結 전망밝아

中·蘇접근이 새로운 단계에 있다고 보는 배경은 대체로 양국의 새 지도부구성, 각각의 국내경제개발문제, 레이건美행정부의 보수적 정책으로인한 美·蘇, 美·中共간의 화해무드 退潮등으로 풀이될 수도있다.

중공은 지난9월 12차공산당전당대회에서 鄧小平의 實用주의 지도노선을 겨우 안정시키는데 성공했다.

이 당대회는『모든 업무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는 사회주의 현대화에의한 실용주의 경제건설 계획』을 올려세운다는 鄧小平계열의 경제건설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금세기말에 이르는 20년간 전국의 연간 공·농업 총생산액을 4배로 증가시킨…

「다」는 사업목표를 정식으로 채택했다. 毛澤東이 남긴 10억의 인구와 세계最貧國(1인당 GNP규모)의 하나라고 불리는 파멸직전의 경제를 서기 2천년대까지 선진국대열에…

12全大회의 당체제가 지속되는한 흔들리지 않을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앞으로 적어도 20년간 중공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中·蘇관계를 비롯한 한반도·인도차이나반도등 주변의 평화적 국제환경일수밖에 없다.

소련은 지난69년에 제시한 「아시아집단안보체제」구상에 따라 영국의 철수와 더불어 생긴 아시아에서의 공백을 「독트린」으로 추진해왔다. 그 기초작업으로 중공주변 각국과 準군사동맹성격의 2국간 조약을 체결했다. 71년의 蘇·印度조약, 78년의 蘇·베트남, 蘇·아프간조약등이 그것들이다.

이것으로 소련은 국경무력충돌후 날카롭게 대립한 중공을 괴롭힐수 있었으나, 반면에 조약상대국원조에 상당한 출혈을 감수해야했다.

베트남의 캄보디아침략에 따라 소련은 베트남에 현재 하루 3백만달러의 원조수준을 유지하고있는것으로 전해진다. 3번째 10만명의 군대를직접 파견하고있는 아프가니스탄에대한 원조도 이와맞먹는규모로 알려지고있다.

또 78년부터 계속된흉작과국운을 건 시베리아개발사업의 부진등 경제사정의악화도 심각한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80년에끝난 10차 5개년계획기간의 소비재산업 성장률은 3.8%로 만성적인 소비재 부족현상을 보여준다.

이런 사정때문에 소련의새 지도부에게 부하된 최우선과제는 국내경제회복이며 이때문에 실제로 안드로포프는 당서기장 수락연설에서 이점을 분명히밝히기도했다.

中·蘇는 이처럼 각각의 국내경제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로 비슷한 처지에 있다. 또 이상주의적인 혁명세대를 지나 지금 양국의 지도부는 이런 현실론을 수용할 수 있는 합리주의 경향을 갖고 있는것으로 보여진다.

브레즈네프가 죽기직전인 지난 10월22일의 中·蘇부외상급회담은 사실상 안드로포프를 비롯한 소련새지도부의 의지였던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브레즈네프장례식사절로 모스크바에 온 지아·울·하크 파키스탄대통령, 간디印度수상, 아프간대통령 바브라크·카르말등 아프간문제당사자들을 안드로포프가 모두만난 사실은 아프간사태의 해결을 추측케하는데 충분하다. 안드로포프는 소련군의 아프간침공을 당초 반대했던것으로 알려져왔다. 베트남문제도소련은 이미 캄보디아에 … 레이암 해군기지를 … 베트남의 철수후를대비해 놓은것으로 전해진다. 소련은 앞으로 캄보디아문제에 … 남을 사이에 끼우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있는 중이다.

中·蘇화해가 양국의 필요에 따른 지속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진전에따라 한반도에도 당연히 상당한 영향이 미칠것은 틀림없다. 최근 金日成의 중공방문을 전후한 닉슨,키신저의 중공방문과 소련관리의 서울방문이 그 하나의 신호일지도 모른다.

中소国境 군사력 배치도(숫자는사단수)

다. 이회담에서도 강조됐지만 中·蘇화해의 전제요건으로 중공측은 中·蘇국경배치 소련軍의 감축과 소련의 아프간개입문제, 캄보디아진출 베트남軍지원문제등의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6천㎞에 달하는 中·蘇국경에 소련은 모두 1백13개사단의 육군가운데 3분의1이 넘는 46개사단을 배치해놓고 있다. 이 군대유지경비를 절약한다는 점에서도 소련은 중공과 이해가 합치할수밖에없다.

어쨌든 이같은 中·蘇양국의 상호절실한 필요상황에서 브레즈네프 사망이 계기가된 弔問外交의 接近답진전은 서방측의 논평도 그렇듯이 두나라가 서로의 이해를위해 좀더 가까와보려는 의도에 변함이 없음을 설명해준다.

특히 이번 弔問外交에서 얻어진 양국사이의 得을따진다면 두나라의 관계정상화를 위해 앞으로도 정치적 對話를 계속한다는 合意에 있다.

이는 바로 앞서 열렸던 北京회담을 모스크바에서 再開한다는 직접적인 설명이되기도 있으며 특히 소련측이 양국관계개선의 장애로 되어있는 要素들을 어느정도는 제거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하는것도 된다.

이미 다아는 사실이지만 이 要素들이란「中·蘇국경과 蒙古및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소련주둔 그리고 베트남軍의 캄보디아주둔에 대한 蘇측의 지지」를 뜻한다.

이번의 相面으로양측이 和解를위해 의견을 같이 했다면 우선 모스크바측이 앞서의「요소」가운데서 상당한 신축성을 보였을것이 틀림없다는것이 서방측의분석이다.

中·蘇화해가 빠른 시일내에 이뤄질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세계정세의판도는 어떻게 달라질것인지 「섣불한 판단은 위험」이라지만 브레즈네프의사망이 가져온 또하나의 큰 변화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朴賛式외신부차장대우】

메아리

4無

요즘 며칠 국회에 教育機能이 있음을 생각한다.

국회에서 이뤄지는 여·야간의 수작, 여당과 정부간의 정책 절충과정은 나같은 非정치적인 인간에게 다시없는 政治教育 교재 구실을 한다. 국회의원과 정부관계자의 언동을 통하여, 비로소 아는 세상 물정도 많고, 배우는 것, 깨닫는 것도 많다.

엊그제 국회 文公委에서있은言論基本法개정안問答도 하나의 깨우침이었다. 그법을 고치자는 야당 제안에 대한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한국일보18日字3면)가 더욱 그러했다.

그 보고에 의하면, 법에 말한 『좌절, 곤란 또는 위태롭게 할 때』와, 개정안의『좌절 또는 위태롭게 할 때』는 같은 말이다.

문제된 야당의 개정법률안은 언론의 情報請求權을 온전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情報제공을 거부할수있는 요건 (法·제6조의 ①~④) 의 제1호, 직무수행의 「좌절」「곤란」「위태」중에서 「곤란」을 삭제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를 검토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는 「곤란」을 빼거나 말거나, 법률용어로서는 뜻에 큰 차이가 나지않기 때문에, 법을 고칠것이 없다는 얘기다.

이 말을 듣고 새삼 국어사전을 뒤적여 「좌절」「곤란」「위태」의 뜻을 찾아 볼 것은 없다. 법률용어란 본디 方言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역하는 律士가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여길뿐이다.

하지만 여기서, 나처럼 얼른 사람은, 한가지 깨닫는바가 있다. 적어도 문제된 법조문에는 빼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군말 한 마디가 끼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법을 만들 때 그 있으나 마나한 말은 왜 들어갔을까.

같은 보고에 의하면, 등록을 받는 행정관청은 그 등록을 취소할 권한을 가진다. 法體制가 그렇다는 얘기다.

이 부분의 야당 개정안은, 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는 정기간행물에 대한「極刑」에 해당하는것이므로, 문공부장관의 판, 등록취소처분 (法제24조) 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는 등록을 받은 관청의 당연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司法절차에 의하여 제약함은 3權分立의 원칙을 벗어날까 겁난다는 것이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다.

하긴 주민등록을 관장하는 행정관청은 주민등록을 직권말소 할수가 있다. 호적을 관장하는 법원도 호적을 직권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

여기서의 깨달음은 정기간행물의 등록이란, 적어도 등록이란본래뜻에서는, 주민등록이나 다름 없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등록의 직권말소와 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가 같은 平面위의 판단일까 — 하는 의문은 남는다.

이밖에도 야당 개정안은 「違法表現物의 押收」요건(法제7조)、「取材源의 保護」의 예외조항(法제8조)、「編輯人의 刑事責任」(法제53조) 에 대한 것을 거론하고 있다. 그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는 좀 까다로운 法理論을 포함하고 있지만, 거기에서도 깨닫는바가 있고, 그깨달음을 뒤좇는 의문이 없지 않다.

그러나 보고가 끝난뒤의 질문과 답변에서 문공부장관은 그 보다 한결 명쾌한 답변을 하고있었다.

그는 야당 질문에 대답하면서,『言論法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용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국민의 눈과 귀가 있으므로』장관의 恣意가 있을수 없는 것이다.

나는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이다.

그의 말대로, 언론자유가「恣意」로 제약 될 수는 없다.

법 시행의 실적도 그렇다. 그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신문은 없다. 그 법에 따라 처벌받은 편집인도 없다. 그 법에 따라 情報를 청구한 사례 또한 없다.

여기「없는 것」을 하나 더 추가하자면, 법을 고치자는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可否간의 紙上論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역시 개정안의 當否를 논의하기보다 뜯어보니「4無」로구나 싶지만, 나는, 이른바 政治議案 논의가 어떤것인지 눈여겨, 볼판이다.

金昌悦 <編輯委員>

인사이드

自由잃은「폴란드」의 봄

蘇지도층 改編이 突破口열었지만…

◇가정으로돌아온 바웬사 11개월이란 긴연금상태에서 풀려나 가정으로 돌아온 레흐·바웬사가 부인 다누타와 함께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있다. 바웬사의 석방은 폴란드가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사전布石의 일환으로 보인다.【AP】

바웬사釋放 사전 布石

教皇、내년여름 故國방문할듯

폴란드계엄이 빠르면 금년안에 늦어도 내년1월중순까지는 해제될것으로 보인다.

계엄선포와함께 계속 연금상태에 있었던 폴란드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가 지난13일 석방된것은 계엄해제를 위한 사전布石으로 풀이되고있다.

야루젤스키 폴란드수상은 지난 15일 거행된 브레즈네프장례식에 참석한자리에서 폴란드계엄을 늦어도 내년1월15일전까지 해제하겠다고 파판드루 그리스수상에게 밝혔다.

한편 그리스주재 폴란드대사 레반도프스키는 폴란드계엄이 금년안에 해제될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때맞춰 금년여름 폴란드를 방문하려다 이계획을 무기한 연기시켜 버렸던 교황 요한·바오로2세는 내년 여름에 폴란드를 방문할것으로 알려졌다. 교황은 자신의 폴란드방문을 앞둔 전제조건으로 계엄해제와 바웬사의 석방을 요구한바있다.

브레즈네프 사망에 이은 안드로포프의 등장으로 소련지도층이 개편된것도 폴란드사태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한계기가 될수 있었다.

레흐·바웬사는 브레즈네프가 죽은지 사흘만에 그리고 안드로포프가 후계자로 결정된지 몇시간뒤에 석방됐다.

관측통들은 노련한 외교관출신인 안드로포프가 폴란드사태에있어 보다 신축성있는 자세를 보일것으로 점치고있다. 그러나 폴란드정부가 계엄을 해제한다고해서 폴란드가 계엄상태이전으로 완전하게 되돌아가기는 힘들것으로 보인다. 이미 자유노조는 완전불법화되어버렸고 레흐·바웬사의 집을 포위하다시피 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있다.

바웬사는 석방직후『정부와 나는 합의점에도달했다. 그러나 그합의는 굴욕적인것이 결코 아니었다』고 말했지만 그뒤에는 거의 모든질문에대해 논평을 회피하고 있다.

폴란드정부는 설사 계엄을 해제한다해도 계엄에버금가는 정부권한을 대폭강화할것으로 보인다.

폴란드 정부당국은 폴란드 계엄선포1주년인 12월13일 특별의회를 소집할것이라고발표했다.

이 특별의회에서 폴란드가 계엄이후에 취한 규제조치들이 토의될것으로 보인다.

계엄이 해제되어 폴란드가 현상황으로는 정상상태로 돌아간다해도 폴란드국민들이 계엄해제를 실감하기 까지는 … 고 계엄선포이전에 잠깐누렸던 자유를 되찾기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고통이 뒤따를것으로 보인다. 【李炳圭기자】

5월人物

쌀 增産王 金忠勳씨

◇82년도 전국쌀 증산왕 金忠勳씨.

82년도 전국쌀증산왕으로 선정된 金忠勳씨 (43) 는 과학영농실천자라서 그런지 도시샐러리맨같은 인상을 준다.

19일 상오 청와대수상식에 참석키 위해 오랜만에 넥타이차림을한 탓으로 목쪽에 손길이 자주간다.

『농토배양·施肥개선·물관리철저·예찰위주의 병충해방제·栽植密度개선·조기이앙이 다수확의 비결입니다』

金씨는 중요한점이 『물관리』…

'농토배양·施肥개선·管理등 비결아닌 당연한 효과일뿐'

海外토픽

자녀1명이상 벌금

★中共山西省서 일정액물어

인구증가억제를 위해 1자녀갖기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고있는 中共의 山西省당국은 이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부부에게 무거운 벌금을 물리는 새로운 규제조항을 마련. 【北京=外】

癌遺傳子는 先天性

★美입부患者연구결과

美국립암연구소연구원들은 최근일부 사람들이 태어날때부터 암유전자 즉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변이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최초의 증거를 찾아냈다. 이들은 작년에 방광·허파結腸및 신체의 다른부위에발생한 암종양에서 암유전자를 분리해낸후 암조직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바 있었다. 【뉴욕=AP】

◇82년 미스월드 런던의 로얄·앨버트·홀에서 18일밤 폐막된 제32회 미스월드선발대회에서 영예의 82년 미스월드로뽑힌 마리아셀라·알바레스·레브론양 (22·미스도미니카공화국) 이 미스월드왕관을쓰고 미소짓고있다. 【런던18日AP합同】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72

<11월22일 (월)부터 공연시작>

동남아지역·유럽을 거쳐 북미주로는 처음 오리엔탈 파레스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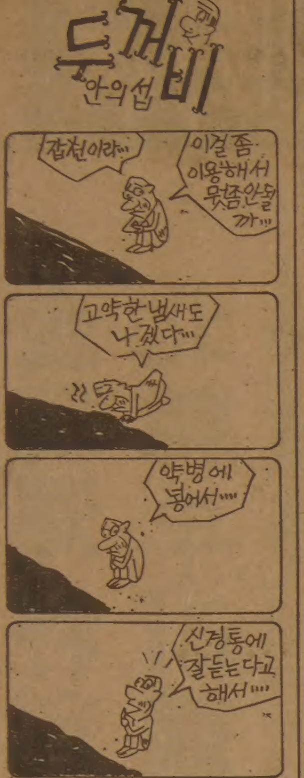
바쁘신중에도 친지와 가족동반하셔서 회포를 푸시기 바랍니다.

한국현대 무용단

뉴 서울

에서 공연

529 BLOOR ST. WEST
TORONTO, ONT.
예약전화 533-1500



永登浦 前區廳長수배

獻樹綠化싸고巨額수뢰 前局長등 3명 令狀

치안본부는 19일 서울永登浦구청 전재무국장 任昌鎬씨(49·현서울시종합기술시험연구소관리부장), 전녹지과장 趙南天씨(41·사표) 등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하고 행방을감춘 永登浦전구청장 申載榮씨(50·현서울시지하철공영사업소장)를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李子園(경기高陽郡)대표 劉相植씨를 뇌물공여혐의로 구속영장을 함께 신청키로했다.

경찰에의하면 전구청장 申씨등은 82년 상반기에 88올림픽 녹화사업을위한 시민헌수금 5억2천7백38만원을 거두어 지난6월 汝矣島에 2억5천만원 규모의 조경공사를 계획, 이공사를 李子園대표 劉씨에게 맡기면서 申씨가 5백만원, 재무국장 任씨가 3백만원, 녹지과장 趙씨가 2백만원을 각각 받았다는것.

이 공사는 경기抱州郡내의 그린벨트지역에서 40년생 느티나무 4백그루를 옮겨심는 등 汝矣島조경을위한 공사였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4월입찰때 구청의 내정가격 2억5천만원이 사전에 누설됐고 국내굴지의 조경업자인 李子園이 경쟁가격보다 절반이나 낮은 공사비로 공사를따낸이면을 조사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申載榮씨와 任昌鎬씨를 19일자로 직위해제했다.

이에앞서 전永登浦구청 녹지과장 趙南天씨는 지난9일 서울시청에 사표를제출했다.

서울시는 올상반기에 시민헌수금 35억2천5백76만3천7백18원을 거두어 이중9억5천1백15만원으로 1백15만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可視거리짧은 철도건널목事故 정부서 損害賠償해야"

大邱고법 판결

【大邱】 급커브등 가시거리가 짧은지점에 설치된 철도건널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때는 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大邱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안윤)는 19일 大邱市東區檢沙洞1017의5 金일곤씨등 일가족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정부는 金씨일가족에게 2백6만6천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제4종철도건널목이라도 통행인이 열차를 볼수있는 가시거리가 짧은지점에 건널목을 설치하여 사고가 발생했을때는 소유자인 정부가 책임을져야한다』고 밝혔다.

원고金씨는 지난 81년9월3일 하오6시40분께 부인송인숙씨가 大邱市東區檢沙洞 大邱기점5·1㎞지점에 설치된 대구선 제4종철도건널목을 건너다 慶州발 서울행 새마을호에 부딪쳐숨지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新】

舊政治人 환수財産기금 奬學재단 내년부터 본격사업

구정치인들의 사회환원재산으로 기금을한 장학재단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벌인다.

문교부는 19일 金鍾泌씨등 구정치인의 사회환원재산으로 「한국전문인육성장학재단」을 발족, 83학년도부터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면제와 생활비 도서비등 학자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 장학회의 지급대상과선발방법은 우선 전국 1백39개 군을 단위로 대입예정 고3 재학생 1명씩을 선발, 대학4년간 등록금 전액면제와 매년 1백10만원씩을지급한다.

◇李炳憲씨 집안에서 7대째 보관해온 뒤주와 놋대야및 便床. 李씨는 사도세자가 갇혔던 뒤주라고 주장하고있다.

思悼世子가 갇혀숨졌던 「뒤주」?

당시 兵曹참판의 7代孫이 保管 祭祀지내와

太宗·世宗·文宗 이름새긴 御寶등 30여점도

思悼世子(1735~1762)가 뒤주 속에 갇혀 있다 죽었던 비극의 뒤주로 보이는 조선조 木器가 뒤늦게(19일) 세상에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있다.

2백20년전궁중에서 한을 품고 바명에 죽은 사도세자가 8일동안 갇혀 있다 죽었던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있는 비극. 가로 1m10㎝, 세로70㎝, 높이 1m5㎝크기에 견고한 자물쇠가 채워져있는 문제의 뒤주 소유자는 李炳憲씨(67·서울道峰區雙門洞 3 1 3 2의2).

李씨가 밝힌 뒤주 입수 경위에 의하면 李씨의 7대조인 李益載(廣州李씨)는 英祖당시 병조참판이었는데 어느날 英祖大王으로부터 당장에 뒤주를 구해오라는 엄명을 받고 사도세자를 가둘 뒤주를 도구로사용할지모르고 그의집에있던것을 갖다주었다고한다.

그런데 李益載의 꿈에 사도세자가 나타나 『뒤주를 절대우지말라. 만일 내말대로 따르면 자손이 수명 장수할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손이 멸문지화를 당할것』이라는 말을 했다.

이 현몽에따라 李益載는 뒤주를 몰래 빼돌려 후손에게 보물비롯, 30여점의 궁중유물도 비장해오고있다.

이 유물가운데는 仁穆대비와 英祖의 이름 「芳遠」(높이11㎝흑진주), 世宗의이름 「祹」(높이12㎝), 직경6㎝의 6모청옥) 文宗의 이름 「珦」(높이9㎝)가 새겨진 로5·3㎝백옥이 새겨진 궁중유물 ...

李씨 집안에서는 2백여년동안 매년 정초 뒤주위에다 경상과 물을 가득채운 놋대야를 올려놓고 굴주림과 갈증으로 죽은 사도세자를 위로하는 제사를 지내왔다고한다.

뒤주의 내부에는 「壽冬水泉土鐵石函 英祖大王子思悼世子」라고 후에 써넣은 글씨와 上下左右라고 세자가죽을때의 시선위치를 적어놓은 것으로 보이는 글씨가있다.

이 유물을 살펴본 문화재위원장 李崇寧박사는 궁중유물속에 사도세자가 쓰던 경상, 놋대야와 함께 몇대째 제사를 지내온 점으로 미루어 비극의 뒤주일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조선조 21대왕 英祖는 貞聖왕후 徐씨와 계비 貞純왕후 金씨에게서 소생을 얻지못하고 英嬪 李씨로부터 孝章세자(어려서 사망)와 思悼세자를 두었는데 1749년에 사도세자로 하여금 대리청정케 하였다.

그러나 사도세자는 무고하게 궁녀를 죽이고 기녀와 여승을 희롱하며 남몰래 궁밖을 나돌아다니는등 奇行을 벌이다가 반대파의 모함을받은데다 부왕 英祖의 노여움을 사 뒤주속에 갇혀있다 8일만에 죽었다.

女學士就業 "바늘구멍"

財閥·은행 "投資가치적다" 외면 추천의뢰 10여명 그나마 "形式"

男性과 여고卒業生만 찾아

올해 여대생의 취업문은 바늘구멍이다.

여대졸업생들의 취업률은 80년에는 한때 50.3%까지 올라갔었으나 지난해부터 뚝떨어지기 시작, 금년에는 취직시즌을 맞았어도 대기업이나 금융기관등지에서 추천의뢰된 여대생들의 수가 한학교에 10여명안팎정도로 적어졌다.

이같은 현상은 큰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때 남성선호도가 날로더해가는데다 인건비절약을 꾀하기위해 여고졸업생들을 우선해 채용하는일이 보편화돼가고 있기때문.

특히 여자의경우 실력과 질이 있다고 판단돼도 입사후 결혼하면 퇴사하거나 업무에 소홀해지게 마련이어서 기업체로서는 투자가치가 없다고 보는반면 최근수년동안 계속된 경기불황등으로 남자고급인력들이 남아도는 실태여서 가급적이면 남자대학졸업생을 채용하려는 경향이 짙어가고 있기때문이다.

19일 대학가에따르면 내년도 졸업예정자중 여대생의경우 공채는 물론 추천의뢰조차 거의없는것으로 나타났다.

지난14일 일제히 공개채용시험을실시한 5대은행의경우 형식적으로 몇개대학에만 입행원서를 보낸것으로 밝혀졌는데 은행별로보면 C은행은 梨大, 淑大에 각각 2매밖에 보내지 않았으며 淑大의경우는 J은행에서 20매, K은행 10매, C은행20매, J은행10매에 불과했으며 나머지여자대학과 종합대학 여대생들에게는 입행원서조차 보내지 않았다.

신입사원을 대량으로 뽑는 재벌기업에서도 여대생을 외면하고 있는데 H사가 梨大에서만 11명을뽑았고 H사가 스튜어디스로 2백명, J사가 50명등을 여대생으로선발했을 뿐이며 나머지 S사, T사등 10여개회사에서 형식적으로 1~5명씩만을 추천의뢰, 응시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

한편 오는27·28일에 실시되는 교사임용을위한 순위고사의경우도 전체여대생의 80%가량이 교직과목을 이수했으나 26개과목가운데 서울이 14개과목 강원10개과목 전남6개과목 충북4개과목등 지난해보다 4~5개과목이 각각 줄어들어 여대생들의 구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S大불문과의 경우 현재 40명의 졸업예정자중 N사에 1명 D사에3명등 모두 4명만 취직됐을뿐 나머지 36명은 앞길이 막막하다.

최근 3년동안 대졸여자의 취업률을보면 지난80년에 1만5천8백12명의 50.3%인 7천9백47명이 취업했고 81년에는 1만6천5백83명가운데 7천8백84명이 취업, 47.5%의 취업률을 보였으나 이같은숫자는 대학원진학등을 모두계산한것이지만 해마다 감소현상을 보이고있다. 【金泰亨기자】

◇金선수와 李英美양의 약혼식. 이들은 지난6월 약혼식을 올렸고 李양은 현재 임신3개월이다.

"金선수와 영혼결혼" 約婚女, 현재 임신3개월 밝혀

金得九선수에게 유복자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金선수의 약혼녀 李英美양(22·서울道峰區倉洞6 2 3의59)은 19일 기자들과만나 현재 임신3개월로 金선수의 아기를 갖고있다고밝히고 金선수의 영혼을 위로하기위해 오는22일 영결식때 영혼결혼식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金선수와 李양은 지난6월5일 李양집에서 약혼식을 올렸는데 친척등 40여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金선수의 龍門교회 목사의 주례로 약혼식을 가졌다.

그후 李양은 직장을그만두고 매일 李天洞 金선수의 전셋방에서 식사, 빨래등의 뒷바라지를 했으며 金선수도 1주일에 2~3차례씩 李양의 집에와서 묵고 간뒤 사실상 부부의 관계를 가져왔다.

李양이 金得九선수를 사귀기 시작한것은 지난 81년9월로 당시 동아체육관이있는 건물4층 대한菜業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됐다.

한편 李양의 아버지 李東植씨(52·상업계통소송)도 이날 잘못하면 두사람의 관계가 한낱 스캔들로 오해를 받아 金선수의죽음에 누가되지않을까 우려했고 딸의장래를 걱정하는 주위의 충고로 있어 딸의신분노출을 꺼렸으나 이들의 진실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딸의뜻을 따르기로결정했다고 밝혔다.

라스베이가스서 永訣式

心臟이식수술은 對象者없어 포기

【라스베이가스=金普泰·李洪烈특파원】 金得九선수의영결식이 20일상오5시(이하한국시간)라스베이가스市 팜머리어메모리얼파크에서 이곳 한인회(회장 林英圭) 주최로 거행된다.

영결식에는 윌리엄·브리아 라스베이가스시장과 단·모란 경찰서장등이 참석하며 이곳 교포들은 검은리번대신 태극마크를 가슴에달고 金선수의 투혼을 기리기로했다.

영결식이 끝난뒤 金선수의 유해는 일단 묘지에 안치됐다가 20일 상오 9시 라스베이가스를 떠나 웨스턴항공편으로 로스앤젤레스에 도착, 고국까지 대한항공편으로 운구된다.

한편 金선수의 臟器이식수술은 18일 하오4시15분부터 45분간 레저트·스프링스병원에서 오스카·실바리에라박사와 보조의사1명등 2명이 집도, 콩팥1쌍은 성공적으로 추출돼 샌프란시스코의 캘리포니아대학 부설 臟器은행에 보내졌으나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는 심장은 이식받을 사람을 찾지못해 수술을 포기했다.

시합전날밤 宿所서 카메라등 盜難당해

한편 金得九선수는 시합전날밤 숙소인 시저스 팔레스호텔에서 자신의 시계는 물론 입원들의 카메라등 3천달러어치의 소지품을 도난당했던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개인 명예훼손발언 지나치지않는한 長官국회답변 違法아니다"

서울민사지법 위자료청구기각

서울민사지법합의7부(재판장 崔鍾伯부장판사)는 19일 중권관계월간지 발행인 李東井씨(73)가 전법무부장관 鄭致根씨(51)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국무위원이 국회답변에서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발언을했더라도 그침해정도가 사회의례상 용인될수없는 특별한사정이 없는한 장관의 답변행위는 적법한 범위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한다」고 밝히고 원고李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李씨는 鄭씨가 법무부장관으로 재임중이던 지난5월한 임시국회법사위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주장, 鄭씨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당시 鄭장관은 李씨에대한 검찰의 불법수사여부와 李·張사건과 어떤관련이 있는지를 밝히라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李씨는 증권관계 월간지 발행인으로서 자신이 소액주주로 되어있는 상장법인의 간부들을 협박, 광고게재를 강요하고 광고비를 갈취한 혐의에대해 수사한일은 있으나 李·張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답변했었다.

재판부는 『鄭씨의 답변은 헌법상 국정감시권에 근거한 국회의원의 질의에대해 국무위원이 진실을 숨기지 않고 답변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으로서 답변으로인해 침해될수있는 원고 李씨의 개인적 법익보다 우월하다』고 전제 『답변내용이 수사경위를 사실그대로 보고한 것이고 답변동기가 오로지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에 있을뿐 개인의법익을 침해하겠다는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李씨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이유를밝혔다.

神經症경력 大學生 教授찔러 殺害

19일하오2시40분께 서울麻浦區新水洞 西江大 전자공학과앞 복도에서 이학교전자공학과 崔炳哲군(25)이 전자공학과장 金明圭교수(32·서울冠岳區新林3洞610의234)의 허리를 부엌칼로 찔러 숨지게했다.

崔군은 이날상오 수업을 마치고 학교에서나와 하오1시께 鍾路3街노점에서 2천원을주고 부엌칼을 사뒤 숨겨오던 金교수를 찔렀다.

崔군은 지난80년 11월27일부터 지난해2월4일까지 신경쇠약증세로 시립정신병원에 입원한적이 있는데 학업에 지장이 없다는 담당의사의 진단에 따라 수업을 받아왔다.

숨진 金교수는 서울大공대전자공학과와 서울大대학원전자공학과를 졸업한 공학석사로 79년3월1일 전임강사로 부임한뒤 81년10월에는조교수가돼 82년3월1일부로 전자공학과장직을 맡아왔다.

金교수의 저서로는 한국전기통신산업연구소가 발행한 「전자회로문제연습」등이있다.

유족으로는 부인 姜信和씨(30)와 毅弘군(26)玉毅양(23)등 동생들이 있다.

미운 오리새끼

YMCA시민중계실간사 吳在官씨

"告發정신은 몇푼의 補償과 못바꿔"

吳在官씨(33·사진)는 「미운 오리새끼다」. 적어도 吳씨때문에 곤욕을치른 기업체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인다.

吳씨는 소비자의고발과 시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처리해주는 서울YMCA 시민중계실 간사인것이다.

吳씨에게는 매일30~40명의 억울한사연들이 찾아온다.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오거나 모두가 생생한 소시민의 애환이담겨있고 듣다보면 숨막히 분노가 치밀어오르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1백원짜리 빵의 불량품에서 영터리 전자제품의 고발, 각종 사기사건등 吳씨가 듣는 하소연은 가지각색. 또 모두가 힘없는 소시민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와 호소하는 하소연들이라서 어느것하나 소홀히 다룰수가 없다.

업고온 아기가 우는것도 모르고 소리소리 지르는 주부의 이야기를 들을때는 자신이 아기를 달래주기도한다.

전공은 아니지만 억울한 피해자의 법익을 찾아주기위해 뛰어다니다 보니 이젠 웬만한 변호사 뺨친다고 동료들이 육사소리도 듣게됐고 소비자고발을 받아 기업체를 찾아다니며 시비를 계속하다보니 웬만한 제품의 공정이나 하자에 대해서도 수준급의 안목이 생겼다.

그러나 민간단체인 YMCA시민중계실로는 힘의 한계가 있다. 잘못된 업체에 제재를 가할수도 없고 사기꾼을 잡으러 다닐수도 없다. 소송을 할때는 변호사를 찾아가지만 맨손으로 청탁하다보니 처음엔 외면당하는 일도 많았다. 그의 열성에 감탄해선지, 스스로 느껴서인지 모르나 이제는 자진해서 협조해주는 변호사가 늘어나 무척 고맙게 생각한다.

吳씨가 이일을 맡은것은 지난78년부터.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한 그는 엉뚱하게 회사원생활을 3년한뒤 사업을 한다고 한2년 뛰어다니다 이길을 찾게됐다.

항상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하나 억울한 사정을 듣다보면 이성을 잃게되는게 고민이라고솔직하게말한다.

『시민들의 고발정신은 해결뒤에 받는 몇푼의 돈으로 계산할수 없는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이 시급히 마련돼야하겠읍니다』 「미운오리새끼」는 역시 뼈대가있다. 【鄭在鎬기자】

오늘밤 男子탁구 南北對決

첫판서 네팔 가볍게눌러 緖戰장식 5-0

제9회 아시안게임

金琦澤·朴利熙·金浣등 활약 北韓、우리競技 비디오 錄畵

【뉴델리=聯合】 아시안게임 첫남북대결이될 남자탁구단체전서의 승산은 반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일 이곳 스포츠촌에서 열린 남자단체 1회전에서 남북은 각각 네팔과 아랍 에미리트를 5-0으로 물리쳐 20일 하오9시반(한국시간) 첫 남북대결을벌이게됐다.

이날 양팀은 모두 주전선수를 내보내 워밍업하듯 쉽게 경기를 끝냈기때문에 확실한 전력을 드러내지않았으나 막상막하가 될것이란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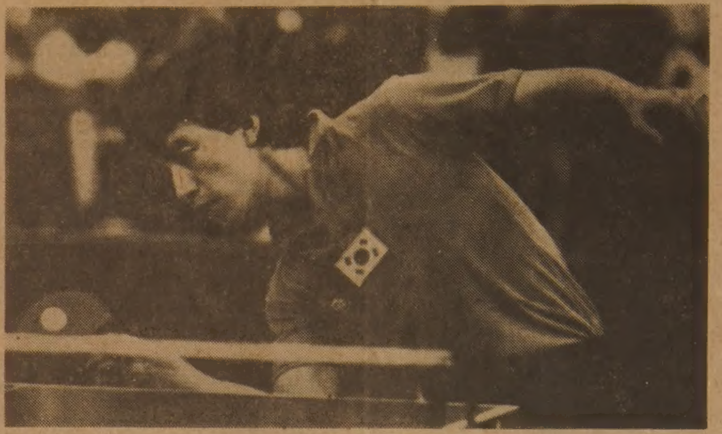
한국은 주전인 金琦澤과 朴利熙 金浣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 노비사드 대회에 출전했던 金昌濟감독이 북한선수들의 모든것을 파악, 대치해왔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하다는것.

반면 북한도 현재 5년여의 대표생활을 해오고있는 조용호(27) 홍순철(22) 홍철(24)이 노련미를 과시하고 있고 이번대회를위해 비장의 무기로 데려왔다는 이근상이 도사리고 있어 만만치가 않다.

중공팀의 축소판으로 불리는 북한팀은 지난번 평양대회에서 중공에 3-1로 지긴했으나 매세트 접전을 벌였다는것이 이번대회에 참가한 북한선수단의 이야기다.

북한은 주전 3명모두가 공격형으로 이중 조용호는 공격템포가 아주빠라 무서운상대가 틀림없고 홍순철과 홍철은 템포가 약간느리긴하나 마무리서브와 커트등 공격을 다잘한다는것이 이날 대전했던 李相國코치의 말.

북한은 우리선수에 대결키위해 우리선수와 비슷한 유형의 선수들을 데리고왔고 경기중에도 3대의 무비카메라를 동원, 남북선수들의 모든 경기내용을 녹화했다. 한국은 지난해 노비사드대회에서 5-4로 어렵게 이겼었다.



◇서전장식하는 朴利熙의 스매싱 한국의 朴利熙선수가 네팔 커란선수의강한 스매싱을 커트로 처리하고있다. 【뉴델리19日신문공동취재단=聯合】

◇한국경기 녹화하는 北韓기자 한국팀의 경기모습을 찍고있는 북한기자들。 옆테이블에서 벌어지고있는 자기팀 선수들의 경기보다 한국팀 전력탐색에 더열을 올렸다. 【뉴델리19日신문공동취재단=聯合】

20일 한국경기(한국시간)

▲하 키
- 한국남자—일본 (18시30분)
- 한국여자—말聯 (18시30분)

▲수 영
- 자유형 2백m·李蕙喆 (17시30분)
- 평영 2백m·千仁泰 (18시15분)
- 평영 2백m·權于穎 (18시35분)
- 혼영 4백m·李始恩 (19시10분)

▲탁 구
- 한국—인도 (12시30분)
- 한국—인도네시아 (18시30분)
- 한국—북한 (21시30분) (이상남자)
- 한국—태국 (12시30분)
- 한국—인도네시아 (18시30분)
- 한국—인도 (21시30분) (이상여자)

▲테니스
- 남자단체—對오만 (시간미정)

▲배 구
- 한국남자—네팔 (14시)

◇한국의 경기일정

(11월19일~12월 4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1일	2일	3일	4일
개회식	▲															
궁도			▲	▲												
육상							▲	▲	▲	▲		▲	▲	▲		
배드민턴							▲	▲	▲	▲	▲	▲	▲	▲	▲	
농구		▲	▲	▲	▲	▲	▲	▲	▲	▲	▲	▲	▲	▲	▲	
복싱								▲	▲	▲	▲	▲	▲		▲	
사이클			▲		▲	▲	▲	▲		▲						
축구		▲	▲	▲	▲	▲	▲	▲	▲	▲		▲	▲	▲	▲	
체조		▲	▲	▲	▲											
골프			▲	▲	▲	▲										
핸드볼					▲	▲	▲	▲	▲	▲		▲				
하키(남)		▲	▲	▲	▲	▲	▲	▲	▲	▲	▲	▲	▲			
하키(여)		▲	▲	▲	▲	▲	▲	▲								
조정		▲	▲	▲		▲	▲									
사격				▲	▲	▲	▲	▲	▲	▲		▲	▲	▲		
수영(남녀)		▲	▲	▲	▲	▲	▲	▲	▲	▲	▲					
탁구(남녀)	▲	▲	▲	▲	▲	▲	▲									
테니스(남녀)		▲	▲	▲	▲	▲	▲	▲	▲	▲	▲	▲	▲			
배구(남녀)		▲	▲	▲	▲	▲	▲		▲	▲	▲	▲	▲	▲	▲	
역도		▲	▲	▲	▲	▲	▲	▲	▲	▲	▲					
레슬링										▲	▲	▲	▲	▲		
요트		▲	▲	▲	▲	▲	▲	▲	▲	▲						
폐회식																▲

◇첫 날전적

탁구

▲남자단체전예선
- 한국 5-0 네팔
- 金琦澤 2(21-19, 21-11)0 디감바
- 朴利熙 2(21-8, 21-9)0 커란
- 金浣 2(21-9, 21-7)0 다르마
- 朴利熙 2(21-8, 21-6)0 디감바
- 金琦澤 2(21-8, 21-9)0 다르마
- 중공 5-0 쿠웨이트
- 북한 5-0 아랍에미리트
- 일본 5-0 베트남
- 인도 5-0 북예멘

한국 準決진출무난 남자농구 對陣확정

【뉴델리=聯合】 남자농구팀의 대진일정이 19일 확정됐다.

당초 참가국중 사우디와 시리아가 불참함에 따라 재조정된 조편성에 따르면 D조의 쿠웨이트가 한국이 속한 B조로, C조에 속했던 북한과 이라크는 중공과함께 재편성됐다.

한국선수 필승다짐

◆…한국선수단은 대회개막일인 19일상오 선수촌 광장앞에모여 선전분투, 필승을 다짐했다.

이날 아침7시 선수촌을 방문한 鄭周永회장은 임원및선수들에게 평소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외국선수들에 대해 의젓하게행동, 아시안게임을 주최하는 국민으로서의 품위를 보이고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鄭회장은 임원들에게는 승패에 너무집착, 선수들에게 심적부담을 주지말라고 부탁하고 식사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배려를 해주라고 당부했다.

뉴델리 소식

골프 金柱憲 우승 전망 밝아
메달 金·銀·銅 모두 1,732개
이란、이라크뒤入場에 불참 위협

◆…아시안게임사상 처음 채택된 골프에서 금메달을노리고있는 한국선수단은 18일 경기장인 델리골프클럽에서 프로를 능가하는 실력을 과시해 연습중인 각국선수와 임원들을 놀라게했다.

특히 지난4월 아시아서키트 서울오픈에서 프로들을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한 金柱憲은 이날 7개의 버디를 기록하는등 5언더파의 실력을 과시, 대부분 핸디7정도 다른나라 선수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현지관계자들은 당초 [illegible]국을 제쳐놓고 日本과 [illegible]편이 우승을 다툴것으로 전망했으나 金선수의 이같은 예상밖의 실력에 당혹감을 나타냈다.

한국팀은 이날 金柱憲외에 金炳勳이 2언더파, 金基燮이 이븐파를 기록, 단체전에서도 우승후보로 부상.

◆…이란은 제9회아시아경기대회개막을 하루앞둔 18일 이라크가 입장식에서 그들보다 먼저 입장하고 印度여성이 이란팀을 선도하게돼있는데 불만을 품고 이같은 것이 시정되지않을경우 대회에 불참하겠다고 위협했다.

대회관계자들은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말했다.

대회조직위원회부위원장인 움라오·싱씨는 『우리는·그들(이란)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 여러분은 그들의 대회참가모습을 보게 될것이다』고 말했다.

움라오·싱 부위원장은 해결되었다는것이 이란이 印度의 다른나라에이어 입장하는것을 의미하는나란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면서 『우리는 이문제를 해결했으므로 그들(이란)은 대회에 참가할것이고 여러분은 그것을 틀림없이 보게될것』이라고만 말했다.

이와관련, 이란대사관의 한관리는 이문제는 이란선수단만이 논평할수있다고 말했는데 이란선수단의 논평은 아직까지 나오지않았다.

이에앞서 이란선수단부단장 하디씨는 이란측이 대회조직위에 그들의 불만과함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면서 그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않을경우 대회에 불참할것이라고 말했다.

하디부단장은 이란이 교전상대국인 이라크와 경기는가질용의가 있으나 입장식에서 힌두語순에 따라 몇m 뒤에서 이라크뒤를 따라들어갈수는 없다고 말하고 인도네시아를 이라크와의 사이에 넣어주도록 요구했다고밝혔다.

◇개회식에서 한국선수단의 피킷을 들고 입장한 피킷걸 라시미·메타양。 【공동취재단】

大會歌 샤카르작곡

◆…이번 아시안게임의 大會歌는 英國 로크그룹 비틀즈의 영향을 받은 기타연주가 판디트·라비·샤카르씨가 작곡했다.

작사는 시인 나렌드라·샤르마씨가 맡았는데 아시안게임의 정신과 화회·우의·협제애·투지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뉴델리 아시안게임을 위해 만들어진 메달은 金·銀·銅등 모두 합쳐 1천7백32개.

대회조직위는 각 경기종목에서 공동수상자가 나올것을 예상, 다소 여유있게 메달을 제작했다.

16개국 民俗공연

◆…뉴델리 아시안게임 기간중 한국과 北韓을 비롯, 모두 16개국의 민속예술단이 뉴델리에서 공연을 가져 경기장 밖에서 또다른 경연을 벌인다.

한국국립무용단(단장 [illegible])은 20일 판파드와리극장에서 개막되는 「아시아드예술제」의 첫날 인도네시아와 함께 공연을 갖게되며 북한의 平壤예술단은 예술제의 마지막날인 30일 카타르와함께 공연을 한다. 【이상신문공동취재단=聯合】

故張專務 추모묵념 北韓대표 고개숙여

◆…18일의 아시아역도연맹총회에는 前AWF부회장이었던 故張喜燮대한역도연맹 전무이사를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됐는데 회의장에 몰려온 20여명의 북한측 회의대표들도 린사무총장이 묵념을 하자고 제의, 모두 고개를 숙이고 묵념을 하기도.

11명의 부회장 입후보자들이 차례로 연설을하자 북한의 장태식은 통역을 대동해 우리말로 연설했고 趙회장은 유창한 영어로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을개최하는 한국의 趙容時에게 아시아역도발전을위해 기여할수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해 박수갈채를 받아 제2부회장에 당선. 이날 亞洲역도연맹총회에서는 스리랑카와 예멘의 AWF가입을 승인함으로써 회원국은 23개국으로 늘어났다.

高麗·明知패권다툼 大學축구 연맹전

高麗大와 明知大가 올해추계대학축구연맹전패권을 놓고 20일 한판승부를 벌인다.

高大는 19일 효창구장서열린 연맹전 8일째 준결승전에서 전반13분 金泰民이 결승골을 빼내 慶熙大를 1-0으로 물리치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또 明知大는 光云大와의 준결승전서 1-1로비긴후 연장전서 李龍이 결승골을 떠뜨려 2-1로승리, 결승전에 올랐다.

◇제8일전적

▲준결승
- 고려대 1(1-0, 0-0)0 경희대
- 명지대 2(1-1, 0-0, 1-0연)1 광운대

「권투證明」소지 義務化

金得九쇼크이후 對戰경력·負傷내용 명시

WBC검토

【런던·라스베이가스=聯合】 세계권투평의회(WBC)는 金得九선수의 사망을 계기로 앞으로 모든 권투선수들에게 그들의 대전경력과 구체적인 부상내용이 명시된 「권투경력증명서」를 소지하도록 의무화할방침이며 각국권투위원회가 이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게된다.

한편 英國 의사들도 각종 링사고를 비난하는 운동과함께 프로복싱의 폐지를 촉구했다.

또 美國 시카고 시의회는 시카고시내에서 개최되는 프로권투경기에서 선수들이 반드시 헤드기어를 착용토록하자는 법안을 發議했다.

맨시니 防禦戰연기 金선수 죽음에 충격

【밀라노AP=聯合】 세계권투협회(WBA) 라이트급챔피언 레이·맨시니는 지난13일 자신과 경기를가진 金得九선수의 죽음에 큰충격을받고 다음달 美國의 로베르토·엘리존도와의 타이틀방어전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이탈리아人 매치메이커 로돌포·사바티니씨가 18일 밝혔다.

맨시니는 당초 오는12월18일 이탈리아북서쪽에 위치한 온천 휴양지인 세인트·빈센트에서 엘리존도선수와 타이틀방어전을 치를 계획이었다.

사바티니씨는 『맨시니가 권투를 계속할것은 틀림없지만 金得九선수와의 대전결과를 잊기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맨시니는 자신의 조부의 나라인 이탈리아에서 몇주간의 휴식을 갖기위해 내달 이탈리아여행을 계획하고있다.

콜롬비아 蹴球場서 관중24명 死亡참사

【캘리(콜롬비아)UPI=聯合】 수천명의 축구관중들이 17일밤 콜롬비아의 캘리市 축구장에서 술취한 청년들이 던지는 쓰레기와 소변세례를 피하기 위해 출구를 서로 빠져나가려고 몰려드는 바람에 24명이 숨지고 2백50명이 부상했다고 경찰이 말했다.

경찰은 일단의 술취한 청년들이 이날밤 3-3을 기록한 아메리카와 데포라보·칼리팀간의 경기가 끝났을때 관중석의 2층에서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아래층의 관중을 향해 빈병을 비롯한 쓰레기와 소변을 뿌리는 바람에 관중들이 이를 피하려고 출구로 몰려들어 짓밟히거나 밑에깔려 변을 당했다고 말했다.

◇東亞체육관에 마련된 故金得九선수의 빈소에서 동료복서와 권투인들이 오열하고있다.

故金선수 22일 문화체육관서 영결식

故金得九선수의 영결식이 22일 상오 10시 서울문화체육관에서 엄수된다.

영결식에는 한국권투위원회 회원 金선수의 모교 千戶商專 선후배·동료선수들이 참석하며 일반인들도 참석이 가능하다.

영결식에 앞서 순천향병원에 빈소가마련되며 영결식이 끝나면 유해는 고향 강원도 고성군거진으로 옮겨진다.

병원費 主催社 부담

金得九선수 內衣 主治醫에 선물

【라스베이가스=李洪烈특파원】 金得九가 묵었던 시저스·팰리스호텔방에서 金선수의 유품을정리하면서 金賢治매니저는 또한번 오열했다.

金선수의 소지품가운데에는 8번이나 읽었다는 三國志를 비롯한 소설책과 손때묻은 라디오 훈련복등이 있었다.

金賢治매니저는 美國의사들이 자기가돌보던 환자들의 소지품을 기념으로 간직한다는 관습을알고 주치의 로너·해머그렌박사에게 경기당일 金得九가 입었던 팬티를 주었다.

해머그렌박사는 『먼저 말을꺼내지 못했지만 고맙다. 두고두고 金선수를 기억하겠다』고말했다.

金得九의 병원비는 모두 9만8천7백달러(한화약7천4백만원)도 타이틀전을주최한 톱·랭크社가부담한다.

톱·랭크社는 경기 6일전 상호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맺어 상해보험금으로 5만달러(3천7백50만원)를 지급받는다.

金선수의 유해가 안치될 알루미늄관은 金賢治 매니저가 탑·버튜어리·메모리얼파크서 1천2백달러(90만원)을주고 구입했다.

한편 레이·맨시니는 오하이오州 영타운 고향에서 金의 어머니에게 조전을 보내 『용감하고 뛰어난 챔피언 金선수의 투지는 세계복싱계 모두의 귀감이 될것이다. 그의 죽음은 커다란 손실이며 슬픔이다. 그는 앞으로 우리 모두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國民銀、결승진출 추계실업 女子농구

國民銀行은 19일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제20회 추계여자실업농구연맹전 준결승전에서 韓國化粧品을 후반에 공략, 65-50으로 역전승을 거두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전적

▲준결승전
- 국민은행 65(43-25, 22-25)50 한국화장품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한국일보 구독신청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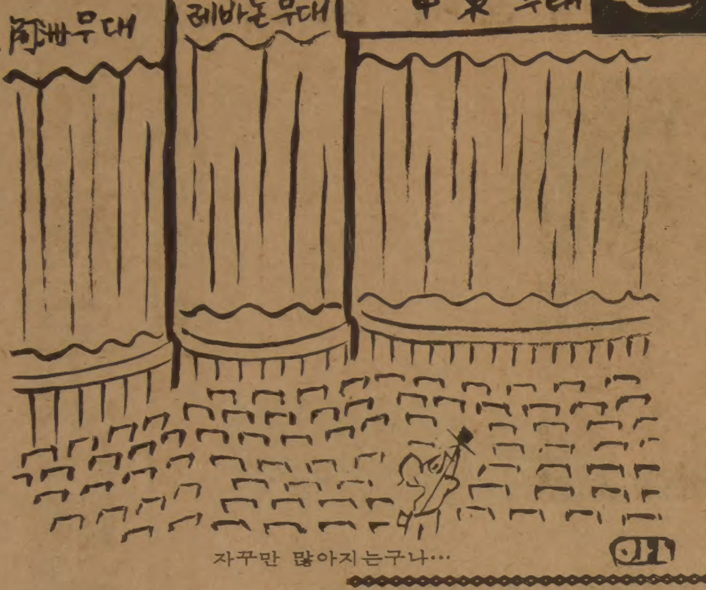
교민을 위한
82년도 송년파티
한국의 거성
민요가수 김세레나
처음 토론토에 오다
일 시 : 1982년12월10일(금) 오후6시
장 소 : 할리데이·인(다운타운)
89 Chestnut(977-0707)
입장료 : $25(디너포함)
□ 매표장소 : 각 식품점및 식당
□ 권순근및 그의악단
□ 찬조출연 : 가수 김미리자
토론토지구 한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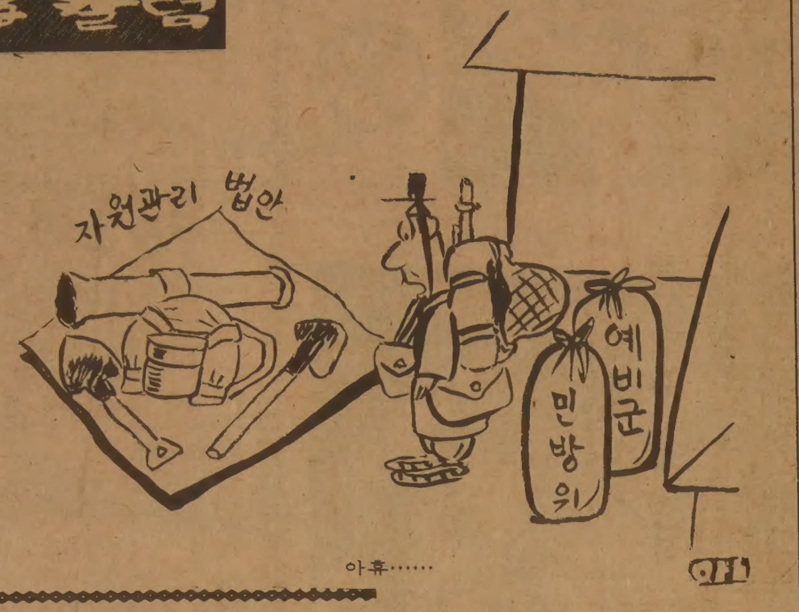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Benjamin Moore PAINTS
블루어 하드웨어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판매수리
변 의 섭
주소 : 608 BLOOR ST. W
전화 : 531-6183

안의섭 時事칼럼





사건記者 수첩

신문에 안난 現場

마혼살이나 먹은 시골의 한 패륜아가 아버지를 때려 중상을 입히고 어머니를 쳐 앞니를 부러뜨렸다. 그래도 자식이라고 사람될 날만을 기다렸지만 마을주민들은 참고 볼수가 없었다. 패륜아를 경찰에 잡아 넘기라고 아우성을 쳤다. 이웃 자녀들 교육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패륜아의 부모를 몰아 세웠고 동정도 보냈다. 마침내 부모는 그 아들을 고발했고 경찰손에 넘겨졌다. 그러나 그것도 자식이라고 부모는 마음이 아파 훈방으로 풀어줄수 없겠느냐고 울며 지새고 있다. 이번주 「기자수첩」을 펼친다.

이웃 권유로 悖倫兒 고발한 父母 "다시 풀어달라" 泣訴

시어머니 안모시려분신

▲지난 7일밤0시50분께 서울은평구응암동221의12 尹태희씨(41·공인회계사) 집 안방에서 尹씨의 부인 韓영옥씨(37)가 10ℓ가량의 석유를 온몸에 끼얹고 분신자살을 기도, 중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중이나 위독하다.

남편 尹씨에 따르면 차남인 자신이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부인과 평소 가정불화가 잦았는데 이날도 이때문에 말다툼을 하다 화장실에 간 사이 부인 韓씨가 부엌에 있던 석유통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몸에 끼얹고 불을 질렀다는것.

이로인해 15평짜리 尹씨집 한옥이 불타 1천5백만원의 재산피해도 입었다.

▲8일하오1시께 서울역 수하물취급소 구내에서 화물열차편으로 실려온 2년생 도사견이 허술한 우리를 부수고 달아나 경찰이 인명피해를 우려, 서울역일대에 비상을 걸고 ·수색작전을 폈다.

45㎏의 우람한 몸집에 루비라고 불리는 이 암도사견은 양기원씨(30·인천시북구 갈산동551)가 裡里에서 친구로부터 선물받은것으로 서울역까지 실려오는 도중 사과상자로 만든 우리를 부수고 나와 있다가 서울역에 도착하자 역원들의 눈을 피해 달아난것이다.

▲평소에 친절하게 지낸 이웃집의 아파트열쇠를 보관중이던 20대 가정주부가 마음이 변해 귀금속을 훔쳐다가 들통.

慶南 昌原경찰서는 8일 가정주부 金금옥씨(26·창원시외동 아파트8동311호)를 절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여인은 지난 8월2일 같은 아파트112호에 사는 金은옥씨(25)가 남편과 함께 하기휴가를 가면서 아파트열쇠를 자신에게 맡기자 1주일 뒤인 8월9일 상오8시반께 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장롱속에 있던 백금다이어 반지등 모두 2백17만5천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다는것이다.

담당경찰관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셈」이라며 혀를 끌끌.

상습자해공갈단 구속

▲서울강남경찰서는 8일 南秉斗씨(50·전과3범·성동구행당동317의605)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鄭明洙씨(46·성남시단대2동505의46)、鄭敏洙씨(35·〃)형제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南씨등은 지난 10월4일 鄭씨집에서 자신의 오른팔에 붕대를 감고 스스로 돌로 자기팔을 내리쳐 전치6주의 골절상을 낸후 10월7일하오1시께 경기光明市光明洞140 앞길에서 張호봉씨(25·광명시광명동6의88)의 90㏄ 오토바이에 일부러 부딪쳐 골절상을 입은것처럼 위장해 張씨로부터 치료비조로 5만원을 뜯어낸 것을 비롯, 10월14일까지 1주일동안 4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2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10월14일 낮12시께 서울銅雀區舍堂洞708 앞길에서 종합보험에 가입한 崔영창씨(23·동작구사당동139의82)의 오토바이에 부딪쳐 보험금 1백만원을 받아내려다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측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봐달라 현금낀 허가신청서 뇌물로 구속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행정서사 李勳씨(58·서울시관악구봉천동877)를 뇌물공여의사표시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李씨는 지난8월18일 서울동대문구신설동 서울시교위동부교육청 보건체육계 사무실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 담당직원인 姜大燦씨(34)에게 자신이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건축허가등의신청서를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허가신청서사이에 현금50만원을 끼워 뇌물을 주려했다는것.

李씨는 대서소고객인 金모씨(39·서울성동구 구의동)로부터 『학교부근 2백m이내에 목욕탕과 여관을 신축하려고 하니 해당 교육구청의 건축동의를 얻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뇌물을 주려다 姜씨의 고발로 걸려든것.

<그림·權大雄>

들치기뒤 승용차로내빼

▲8일밤10시10분께 서울鍾路區惠化洞21의2 앞길에서 李명순씨(29·성북구성북동104의38)가 현금7만5천원이 든 핸드백을 30대남자에게 날치기당했다.

李씨에 따르면 이날 시내에서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중 50여m를 뒤좇아온 범인이 갑자기 달려들어 자신을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핸드백을 빼앗은뒤 10여m 뒷길가에 세워둔 서울2가2913호 은색 포니승용차를 타고 동대문쪽으로 달아났다는것.

40代 전과4범 패륜아 부모 애증雙曲線

▲경기安養경찰서는 부모를 때린 패륜아 權찬식씨(40·시흥군수암면 광석리109)를 존속상해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특수절도등 전과4범인 權씨는 일정한 직업도 없이 놀면서 주벽이 심해 마을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려 왔는데 지난7월중순께는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아버지(64)머리를 콘크리트벽에 밀어붙여 전치24주의 중상을 입혔고 이틀뒤에는 어머니(62)에게도 용돈을 안준다고 폭행, 앞니2개를 부러뜨리는등 행패를 부려왔다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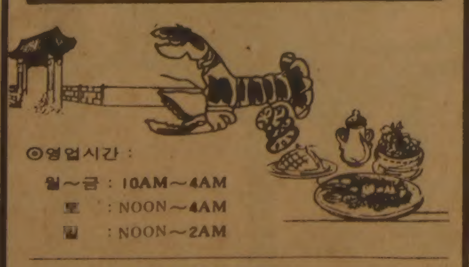
權씨 부모들은 아들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고 그동안 타일렀으나 행패가 여전해 마을사람들의 권유에 못이겨 아들을 고발하게된 것인데 막상 구속되자 부모들은 훈방조치해주도록 경찰에 부탁까지해 와 부모의 자식사랑은 역시 하늘같음을 실감시켰다.

매맞았다 "의치빼돌고"

▲서울 江東경찰서는 4일 택시요금을 내지 않은채 운전사와 시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자 자신의 의치를 빼내 폭행당했다고 운전사에게 누명을 씌우려한 승객 裵鍾福씨(31·공원·강동구성내동235의5)를 공갈혐의로 입건.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10AM~4AM
토 : NOON~4AM
일 : NOON~2A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 와 Chestnut 코너)
☎ : 977-97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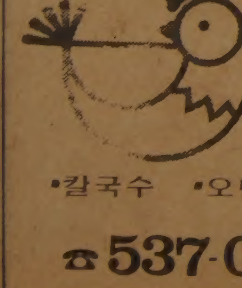
맛 사 지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Chameleon Sunglass Boutique
<각종 고급 썬그라스 대매출>
각종 유명 메이커제품을 구비하고 한인교포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Paola Belle
·Zeiss
·Porsche
·Ted Lapidus
·Yves St,Laurent
·Christopher Magnus
·Play boy
검안 해 줍니다.
Prescription Also Available
15% Discount Korean Only
·Christian Dior
·Ferrari
·Nina Ricci
·Roger Gallet
·Emmanuelle Khahn
·Pierre Cardin
광고쿠폰을 가져오시면 15% 할인합니다.
Bring This Ad for 15% Discount Korean Only

St. Charles Promenade(Tel: 920-4062)
(One Block South of Bloor St.)
730 Yonge St.(블루아×영 남쪽)

내고향 통닭집
•칼국수 •오뎅 •통만두
☎ 537-0432
658½ BLOOR ST. W.



「신문에 안난 現場」

맞춤법訂正부분 전화잘못통보 2중소동

제약원료은행잎 마구잡이떼내 나무수난

경찰에 따르면 裵씨는 지난2일밤9시50분께 서울冠岳區新林洞 신림극장앞에서 서울4파9189호 영업용 택시를 타고 千戶洞에 이르러 운전사 秦炳熙씨(29)가 택시요금3천2백원을 요구하자 『집앞까지 태워다주지 않으면 요금을 낼수없다』고 행패를 부렸다는것。

裵씨는 운전사 秦씨가 행인들과 합세、자기를 파출소로 연행하자 운전사 몰래 자기의 의치1개를 빼내들고 『운전사가 폭행、이가 빠졌다』며 3시간동안이나 파출소안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다。

교과서잘못 뒤늦게난리

▲금년6월에 발간된 국민학교 교과서에 맞춤법이 잘못된것이 요즘에야 발견돼 뒤늦게 문교부와 서울시교위가 이를 정정하느라 법석。

지난달 30일 문교부는 종전의 국어、사회、도덕을 한데묶어 펴낸 2학년2학기용 바른생활 94페이지 「순영이의 이야기」편에、한약을 「달여먹다」를 소리나는대로 「다려먹다」로 표기한것을 뒤늦게 발견、이책이 보급된 서울·중부지방등 해당 시도교위에 정정을 지시한것。

문교부는 정정지시 공문을 보내면서 서울시교위에는 전화로 통보했는데 시교위에서는 「달여먹다」를 「가려먹다」로 잘못듣고 시내 국민학교들에게 「가려먹다」로 고치라고 공문을 보낸후 다시 이를 정정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최근 농촌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제약원료로 쓰인다는 은행 나뭇잎을 마구잡이로 따내고 있어 은행나무들이 큰 수난을 겪고있다。

경기道驪州·楊平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서 은행나뭇잎을 사러오는 상인들이 몰려들면서 일부 주민들이 낙엽진 은행잎은 물론、아직 떨어지지 않은 은행잎까지 장대등으로 마구 털어내 은행나무가로수와 노거수(老巨樹)가 크게 훼손되고있다。

驪州邑내~능서면 왕대부락 구간에 있는 수백그루의 은행나무 가로수는 나뭇잎이 지기전에 잎이 모두 채취됐으며 楊平郡楊平邑양금리 일대의 은행나무들도 1개월전부터 잎이 완전히 떨어져 나간 앙상한 가지만 드러내고 있다。

驪州邑읍상리 金모씨(46)는 『1관에 5천여원씩하는 은행나뭇잎을 따 일부 주민들은 재미를 보고있다』고 말했다。

야구하다 배트맞아중태

▲2일 하오5시께 서울 江東區岩寺洞 암사아파트42동 앞길에서 동네친구들과 야구를 하던 李노식군(11·강동구 천호동287의3)이 노완호군(18·노동·강동구 오금동496)이 휘두른 나무배트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이다。

李군은 이날 동네친구 4명과 함께 아파트단지 안에서 야구를 하다가 길가던 노군이 야구배트를 빌어 공을 치려고 하자 뒤쪽에서 공을 잡으려고 나오다 노군이 휘두른 배트에 뒤통수를 맞아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것。

▲1일낮12시40분께 서울 龍山區漢江路 C고교전기과 1년 A반교실에서 이학교 운전과3학년 金모군(19)이 전기과1년 A반 李명진군(17)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그 자리서 숨지게했다。

金군은 이날 점심시간을 이용、하급생인 李군의 교실로 찾아가 친구와 어울러다니며 싸움을 하는등 나쁜짓을 더 이상 하지말라며 타이르는 도중 李군이 반항을 해 주먹으로 가슴을 두번 때리자 쓰러졌다는것。

경찰은 金군을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고물상 종업원이 장난감 로키트포탄을 진짜인줄 알고 경찰에 신고、군·경이 긴급출동하는등 한때 소동。

1일하오3시40분께 서울 麻浦區城山洞572 경북고물상 (주인 황인숙·48)에서 수거해온 파지를 분류하던 종업원들이 길이25㎝ 직경4㎝크기의 플래스틱장난감 로키트포탄을 발견、제대로 확인도 하지않은채 이웃 파출소에 진짜 로키트포탄을 주웠다며 신고했다。 신고받은 파출소직원들은 마포서에 이를 그대로 보고했다。

그러나 군·경이 잔뜩 긴장하고 현장에 출동、살펴본 결과 문제의 로키트포탄은 장난감임이 밝혀졌다。

초동수사 기동성결여울상

▲서울강남구잠원동 한신아파트 朴聖淑양(25)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초동수사의 기동성결여로 유류품과 목격자등을 찾아내는데만 1주일을 허비하고도 마상 손에 쥔 물증이 수사에 별 도움이 안되자 안타까운 모습들。

이에 다급해진 경찰은 범인의 점정색 양복바지가 마춤복이라는데 한가닥 희망을 걸고 강남、관악、강동、용산、동작구등 서울시내 각지역 양복점과 마춤복집 명단을 작성、이들 주인을 통한 탐문수사를 벌이기도。

경찰이 이같이 양복업자들에게 신사복의 바느질 상태감정을 의뢰하는등 단서잡기에 안간힘을 쓰자 한 수사관은 『뒤늦게 찾아낸 유류품을 들고 양복업자들에게 탐문수사를 한다니 과학수사의 표어가 부끄럽다』고 한마디。

사건記者 수첩

日帝때묻은 문화재 몰래집사、발굴타 들통

교포앞세워 현장찾아

▲일제때 大邱에 살면서 모은 50여점의 문화재를 살던 집마당속에 묻었다는 일본인으로부터 이를 발굴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국내 자본책이 인부를 동원、발굴작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8일 大邱시경에 따르면 일제때 大邱市中區北城路2가35의15에 살았던 일본인 모리또씨(나고야거주)가 지난8월중순 재일교포 金순평씨(63)등 2명을 大邱로 보내 자본주 金익환씨(38·대구시 남구대명7동1733의3)와 만나게했다。 이들은 金씨에게 문화재가 발굴되면 3분의1을 주기로하고 문화재가 묻힌곳으로 알려진 대구시중구 북성로2가35 金모씨의집 빈창고 30평의 절반인 15평을 4천8백70만원에 매입키로 하고 계약금조로 2백50만원을 지불、지난10월26일부터 11월3일까지 인부3명을 시켜 창고안을 가로3m、세로3m까지 파들어 갔다는것이다。

동거여인 변심에 음독

▲지난달 31일하오 1시께 서울강동구문정동43 鄭南順씨(43·여)집 문간방에서 梁在龍씨(46·성남시 신흥동191)가 속옷만 입은채 피를 토하고 숨져있는것을 집주인이 발견、경찰에 신고했다。

梁씨가 숨진 방안에는 먹다남은 소주병과 옷가지등이、어지럽게 널려있었고 오른손에는 1천원권 종이돈 한장이 쥐어져 있었다。

梁씨는 鄭씨집에 세들어 사는 林모여인(41·파일행상)과 지난해12월부터 동거해 왔는데 지난달30일밤 林여인과 심하게 다투고 林여인이 밤새 자취를 감춘사이 변시체로 발견됐다고 鄭씨네 가족들은 말했다。

林여인과 梁씨는 5년전 城南市에서 알게된후 내연관계를 맺어오다 모두 가정파탄이 일자 동거를 해왔는데 지난4월부터는 梁씨가 변심、다른 여자와 사귀자 林여인이 『내가 벌어놓은 돈이 다 떨어지자 마음이 변했다』며 심한 불평을 해왔다는것。

▲서울시경은 최근 서울시내 일부 인삼찻집에서 접대부까지 두고 규정된 차외에 술을 파는등 변태영업을 하고있다는 정보에따라 8일 하룻동안 일제단속을 실시、위반업소 46개소를 적발하고 업주와 접대부등 1백22명을 즉심에 넘겼다。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서울시가 내리도록 이를 통보했다。

경찰에 적발된 서울中區新堂1동 신라인삼찻집(주인 윤봉주·38)의 경우、접대부 2명을 고용、술을 팔면서 객실과 내실에서 음란스런 서비스를 해왔고 도봉구미아3동 정애찻집(주인 정절자·41)도 접대부 2명을 고용、손님들에게 난잡한 접대를 했다는것。

이날 적발된 다른 업소들도 대부분 접대부 2~3명씩을 두고 차외에 술을 팔거나 칸막이를 하는등 시설기준을 외면하고 영업을 했다。

〈정리=[illegible]升遠기자〉

海外토픽

세상에는 별의별 인간들이 다 많다。 일본의 「니혼텔리비」에서 방영하고 있는 「깜짝쇼」에 최근 등장한 「초인」의 모습들을 보면…。 【외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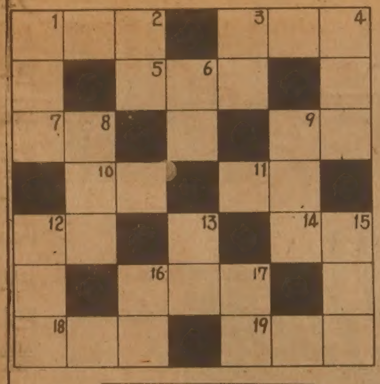
▼수염王=올해 84살의 존·로이씨는 29세때부터 콧수염을 기르기 시작, 지금 1m50㎝나 되는 수염을 자랑한다。스코틀랜드식 스커트를 즐겨 입는 로이씨는 영국의 신사를 자처하며 55년동안 수염을 깎지 않았다고。

▲손톱王=무라키아·디키아씨。 올해 49세。17살때부터 재미로 손톱을 기르기 시작했다。엄지손톱이 무려 54㎝, 인지손톱은 46㎝, 장지 54㎝, 새끼손가락 49㎝로 손톱의 합계가 2m56㎝나 된다。

가족과 함께 두뇌 체조를

뉴스 낱말 풀이 퀴즈

<제32회 퀴즈>



<힌 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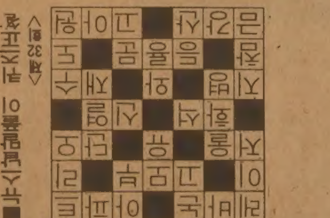
■가로

1. 한국에 파병요청
3. 투기꾼들 전매
5. 아버지의 매부
7. 무게를 가름할 때
9. 음력 5월5일
10. 지질시대의 동식물 유해가 암석속에 남아 있는것
11. 아플 때 열이 나는것
12. 몸에 지닌 병
14. 제사에 쓰이는 음식이나 재료
16. 입신출세를 용에 비유한 말
18. 여름엔 봉래산, 가을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
19. 부모가 없는 아이는 여기에

■세로

1. 암치료와 살인무기로 쓰이는 빛
2. 검사가 법정에서…
3. 남의 비위를 맞추고 알랑거림
4. 3인조
6. 흰 빛의 피
8. 화가 나서 생기는 병
9. 보온이나 화재예방을 위해 쓰는것
12. 신부가 시집갈 때 가지고 가는 돈
13. 엎드려 있는 용
15. 수녀원과 수사원의 총칭
16. 가장 인기 있는 주말 레저
17. 서류나 책을 보관하는 곳

<제31회 퀴즈해답>



숨은그림 찾기

방랑시인 김삿갓

김삿갓의 본이름은 김병연(金炳淵)이었으며 순조7년 김안근의 둘째아들로 태어났다한다。양반집에서 태어나 많은 공부를했으나 할아버지가 반란군에게 항복한 죄로 그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쓰러지고 말았으며 김삿갓 형제는 어머니와함께 머슴의 고향으로 내려가 신변을 숨기며 살았다。

그후 김삿갓은 글재주가 뛰어나 지방에서 보는 백일장에서 시를 지어 장원급제를하게됐으나 그 시가 자신의 할아버지 김익순을 욕한글이라는 어머니로부터의 얘기를 듣고 삿갓으로 얼굴을 가리며 좌절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며 숱한 비화를 남긴 비극의 시인이었다。

방랑인생 60의 전라도 동복땅의 강참봉을 만나 그곳 낚시터에서 한많은 인생의 막을 내렸다한다。

『새도 짐승도 제집이 있는데 나는 한평생 혼자서…』 평생시(平生詩)한수를 읊조리며…

〈작품중에서〉

■숨은 그림

반지, 플래스틱 바가지, 소의 앉은 뒷모습, 열대어, 매미, 병아리, 달팽이, 해마, 무우, 배추, 가지, 접은 우산

구성 장태산

82년도 인벤토리 스페샬

KAWAI PIANO·ORGAN 대매출!

날로 교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발전하고 있는 저희 회사에서는 파격적인 염가로 교민 여러분께 다시 대매출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단기분할 판매실시 (3~6개월)

이 기회를 꼭!

KAWAI KEYBOARD CENTRE
MARKHAM PLACE MALL (Don Mills & Steeles)
Tel: (416) 881-8230
9350 Yonge St. (Hillcrest Mall)
Tel: (416) 883-9407
President · LUCAS YUN 윤 호 섭
Sales Manager · ALLEN DUMA

⊙가와이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에서 생산되고 있읍니다.
⊙가와이 피아노는 일본정부가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가와이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Upright 피아노를 생산합니다. (Anthony Liversidge 기고 "House & Garden"에서)
⊙가와이 Keyboard Centre 는 유일한 한국인의 딜러이며 항상 교민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하고 있읍니다.

移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민 병 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사람들은 날씨와 건강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믿고있다. 신경통이나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내게 날이 궂으면 몸에서 오는 증세로서 비가 오리라는 것을 미리 알게되는 것을 주위에서 볼수가있다. 그래서 인지영어에서도 under the weather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under the weather란 not feeling well physically의 뜻으로 「신체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 다시 말해서 「몸이 불편한 상태」를 가리킨다.

「오늘 몸이 좋지 않아서 일찍퇴근하고 싶습니다」를 옮겨 본다면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today, so I'd like to leave work early. 라고 하면 된다. 질문으로 「몸이 불편하세요?」는 Are you feeling under the weather? 가 된다.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와비슷한 표현으로는 I'm not up to par. 또는 I'm a little down today. 가있다.

「약간 불편하다」고 표현할 때는 a little을 넣어서 I'm feeling a little under the weather. 라고 하면된다.

몸이 불편한경우, 「오늘 몸이 아파서 출근을 못하겠다」고 근무처에 전화를 걸게되는데 영어로는 I'm calling in sick today. 라고한다. 그러니까 He called in sick 란 「그가몸이아파서 출근을 못하겠다고 전화를걸었다」는 말이 된다.

물론 직장에따라 다르겠으나, 한 달에 한두번정도 call in sick를 인정해주는 직장도 있다.

A : Hello, Margie?
B : Yes. Is this Tome?
A : Yes. Sorry, Margie, but I'm going to have to break our date.
B : Why, what's the matter?
A : I'm feeling a little under the weather.
B : O.K., maybe we can meet next week.
A : 여보세요. 마—지?
B : 네. 탐이세요?
A : 그래요. 미안하지만, 마—지, 데이트 약속을 취소해야 될것 같습니다.
B : 왜, 무슨 일이예요?
A : 몸이 약간 불편해서요.
B : 그렇게 해요. 다음주에 만날수도 있으니까요.

유머英語

He held her close against him, a warm glow of satisfaction covering them both. "Am I the first man you ever made love to?" he asked.

She studied him reflectively. "You might be," She said, "Your face looks very familiar."

사내는 여자를 껴안았고 두 사람은 뜨거운 희열에 도취되었다.

"내가 첫남자인가?"

여자는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그의 얼굴을 살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썩 눈에 익은 얼굴인데요."

glow : 후끈하게 몸이 달아오름, (충족한 행복감)

reflectively : 반성하며, 반사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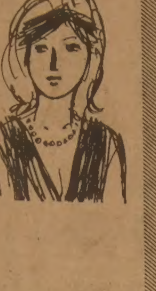
구입처 :
B. C. MIN
1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 S. A.
전화: (312) 966—4050
책: 제1권(12불), 제2권(12불), 제3권(12불)

連載 소설

스물세살의 자서전 人肉市場

金洪信 作
崔然石 畵

100



지난줄거리

은미를 구하는 길은 생각한 것만큼 쉽지 않았다。그쪽 일에 전문가를 여러명 동원하였다。경식이 일행이 이사간 한일교류문협이란 비밀단체를 찾아냈지만 뚫고 들어갈 길이 없었다。그들은 여차하면 위조여권으로 탈출하는 애들이었다。마침 펀치형 신세를 진, 한번 팔려갔던 윤희란 여자가 나타나 작전계획을 쉽게 짤 수 있었고 윤희가 위장 잠입하기로 결정되었다。

『형님, 일이 잘 풀려나갑니다。윤희가 잠입하는데 성공했읍니다。지금 신호가 오고 있읍니다。』

경식이의 들뜬 전화목소리가 들려왔다。나는 심호흡을 했다。

『알았다。절대 경거망동 하지 마라。애들은 철저하게 숨겨라。내가 갈 때까지 다른 사태가 없는한 절대 고개를 내밀지도 마라。』

『알았읍니다。걱정마세요。』

경식이가 옛 동료와 연결되어 윤희를 그 비밀조직에 잠입시키는 일까지는 성공시킨 것 같았다。그들 눈에도 윤희는 좋은 상품일 수밖에 없었다。그만한 얼굴과 몸매라면 제법 값을 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았다。

내가 비밀 아지트에 도착하자 두번째 신호가 왔다。두번째 단추를 누른 것으로 미루어 흥정이 시작되고 인물이 반반하니까 여권수속을 정상적으로 해서 빼는게 아니라 위조여권으로 빨리 출국시키려는 것 같았다。

『모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기하라。며칠이 걸릴지도 모른다。큰애들이 들랑거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알았읍니다。저희들 걱정은 마세요。단단히 각오하고 나왔으니까요。』

정말 여러날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었다。윤희가 어떻게 손을 쓰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단축될지도 모른다는 건 내 바램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애들은 제대로 준비하고 있겠지。』

『걱정마세요。윤희한테 무슨 일은 안 생길 겁니다。생길 수도 없어요。』

내가 자꾸 조바심을 내니까 도리어 경식이가 위로의 말을 해 주었다。웬만한 일에 이렇게 조바심을 내는 경우가 없었던 나였다。

세번째 신호가 온 것은 늦은 밤이었다。7번 단추를 누른 것으로 보아 제 거물급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았다。이쪽에서 윤희가 있는 곳으로 신호를 전혀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한 걸 풀 수가 없었다。그렇다고 쉽게 뛰어들어 갈 수도 없었다。

계집애들이 들랑거리는 걸 보면 윤희도 한번쯤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았다。힘께나 써보이는 애들과 쪽발이 냄새가 물씬 나는 녀석들도 가끔 드나드는 게 보였다。

이튿날 아침나절에 윤희가 나왔다。긴장한 탓인지 푸석푸석한 표정이었다。

『어땠어요?』

나는 반가운 마음에 덥석 손을 잡았다。윤희는 밝게 웃었다。

『일이 의외로 잘 될 것 같애요。어젯 밤에 벼락치기로 서류 만들기 위해 사진도 찍었고 두목인지 모르지만 제 큰소리치는 사내한테 면접시험도 봤어요。』

『그렇게 빨리 수속을 밟아요?』

『빤하죠。제가 상품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겠죠。아침에 보니까 여권사진이 벌써 나왔던 데요。일본에선 회원들이 벌써 도착했다는 거예요。우리나라에서 준비가 늦은 데다가 중간에 한 여자가 집안 사정으로 빠져 버리는 바람에 체면이 말이 아니래요。아버지가 갑자기 돌아 가셨대나 어쨌다나 해서 할 수 없이 그냥 보내려던 참이었대요。마침 내가 생겨서 누구한테 부탁하면 국제교류니까 여권도 지급으로 내준다나 뭐 그러면서 일주일안에 어느날 떠날지 모르니까 아예 거기 와서 숙식하고 일본어 공부나 하래서 그러겠다고 했어요。』

『솜씨가 빠르군요。』

『그렇죠。제가 잡혀갈 땐 시간이 오래 걸렸었어요。지금은 안 그런가 봐요。』

『일본사람도 들랑거리는 것 같던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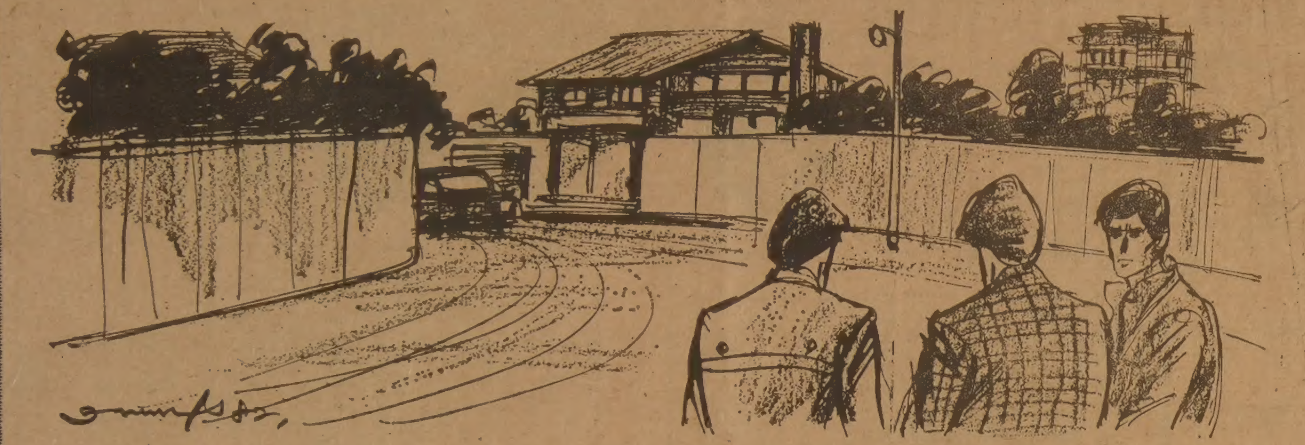
『명함 보니까 일본국 문부성 해외협력관인가 뭔가 쓰여 있던데요。아무래도 현지 책임자일 거예요。웬만한 사람은 깜박 속아 넘어 가겠어요。저도 자꾸만 이번은 진짜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이거 왜 이래요。그러다가 정말 누구 죽이려고。』

『그 정도로 치밀하다는 뜻에요。그 안에 있는 여자들도 열댓명 돼요。』

『경계는 어떤 것 같애요?』

『낮엔 한 열명 돼요。여자 직원도 있어요。밤엔 서너명뿐예요。낮에 오는 애들은 바람잡이들 같애요。나를 소개한 애도 계속 있었



오니까요。』

『큰애들이 한번은 올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거기 있는 여자들은 언제 떠난대요?』

『제가 그 팀으로 가는 건가봐요。인원이 계획대로 한 모양이죠。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 가서는 민간외교 사절로서 이러이러한 예절과 이러이러한 국위선양에 힘써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훌륭한 녀석들이군。』

『그러게 말예요。』

우리는 전원이 모여서 내부의 구조와 지키고 있는 애들의 자세와 무기를 소지한 애들이 있을 것에 대비한 윤희의 계획을 듣고 검토해보았다。

『맞아, 그 중에 한놈쯤은 총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그만한 규모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거니까。각자 조심하고 내 지시 없이 뛰어들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요。개를 하는 걸로 봐서 제가 당할 때의 애들하군 완전히 달라요。우리 때는 일본에 도착해서야 일행이 여럿이란 걸 알았는데 재들은 아예 합숙훈련까지 시킬 정도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조직의 뿌리를 깨끗하게 잡아 챌 수는 없을것 같았다。두목급의 애들과 일본 녀석 정도만이라도 잡는 것이 현명할 것 같았다。비밀조직이어서 결코 그 집단 전체가 한자리에 모이지는 않을것 같았다。그 장소는 일선 거점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큰애들은 결코 그 자리에 나선것같지 않았다。

내가 일본으로 가서라도 끝까지 뿌리를 뽑을테니까

『어쨌든 며칠 안으로 큰애들 한두명과 일본 녀석이 올 거다。마지막 점검을 하든지 인원점검이나 출발준비 때문에 올지 모른다。그때 습격하자。그 이상의 조직은 당장 한칼에 잡을 수는 없을거다。』

나는 윤희의 말대로 작전계획을 바꾸었다。애들은 처음과는 달리 긴장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었다。보통 여자장사꾼 애들이 아니라는 걸 눈치 챈 때문이었다。

『만약 진짜 큰애들이 뛰면 어쩌죠?』

경식이가 걱정이 되는지 이렇게 물었다。

『이번엔 안놓친다。안되면 내가 일본으로 가서라도 끝까지 뿌리를 뽑을테니까 너희들은 몸조심이나 해라。무리해서 잡을 생각마라。위험하면 놔둬도 상관없다。지금 팔려가는 여자들이나 우선 구했다고 자부해도 상관없다。』

애들은 숙연해졌다。일본으로 팔려가는 여자들의 신세가 어떤 꼴인지 애들은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다。

꼬박 이틀 동안 우리를 긴장시킨 윤희는 우리가 고대하던 4번 단추를 밤 늦게 눌렀다。아마 그 이튿날쯤 출발시키기 위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자, 가자。준비는 다 됐지?』

『됐읍니다。』

『애들을 제대로 배치하고 담 넘을 땐 만약을 모르니까 세명씩 조를 짜도록 해라。』

『예。』

『위험한 때가 아니면 그거 쓰지 마라。』

『명심하겠읍니다。』

경식이는 내가 건네준 물건을 조심스럽게 옆구리에 찼다。화약을 잔뜩 넣어 소리만 요란하게 낼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다。위험한 때 소리를 내서 위기를 모면할수 있는 물건이었다。만약의 사태가 발생해도 사람들이 뛰어나와 구경만 해준다면 충분히 위기를 벗어날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정문 옆으로 다가갔다。큰애들과 일본 녀석이 타고 온 승용차 두대가 문 밖에 서있었다。운전사도 따라 들어간 것 같았다。

『문을 따고 합선시켜 시동을 걸 수 있게 해봐라。』

『두대 다요?』

『그래。』

애들은 잽싸게 연장을 꺼내 차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준비하고 있어。너희들은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크락숀을 눌러대。』

『알았읍니다。』

『조심해서 들어가라。』

애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담을 넘어갔다。경식이가 내 뒤를 바짝 쫓아 들어왔다。불빛이 환하게 비치는 유리창은 커튼으로 가려져서 안이 보이지 않았다。현관문은 열려 있었다。

『형님은 여기 계십쇼。저희들이 해낼 테니까요。』

『위험하면 뛰어라。』

『걱정마세요。』

나는 애들을 먼저 들여보내고 표창을 꺼내 들었다。안에 있는 애들이 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면 애들이 쉽게 잡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무기를 가졌다면, 내가 숨어 있다가 기습을 하는 게 상책이란 생각이 들었다。일본 녀석들이 끼여 있어서 총기류를 소지하고 있을 수도 있었다。보나마나 일본의 3류 깡패들일 것도 뻔했다。

어디를 가도 어떤 집단이든 1류와 3류 차이는 엄청난 것이었다。

애들이 한꺼번에 뛰어들어 갔다。나는 현관 뒤에 숨어서 표창을 꼰아 쥐었다。후다거리며 맞붙는 게 보였다。우리편 애들은 솜씨가 뛰어난 애들이었다。내가 골라낸 애들이어서 웬만한 솜씨로 잡을 수 없는 실력파들이었다。

잠깐 사이에 우리편 애들은 그쪽 애들을 꺾어 앉혀 놓았다。

『꼼짝마라。움직이면 다 죽인다。』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다。일본 녀석이 액선트가 어눌한 우리말로 이렇게 지껄였다。그 뒤엔 큰 애가 확실한 사내 두 명이 냉소를 품고 서 있었다。

일본 녀석 손에 쥐어진 권총은 외국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날씬하고 깜찍스럽게 생긴 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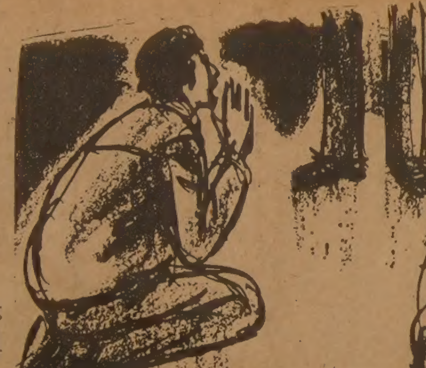
『빨리 밖에 나가봐라。그리고 이 자식들 빨리 묶어라。』

큰애가 왕초답게 명령했다。일본 녀석은 날카로운 눈매로 응접실을 훑어보았다。큰애의 명령을 받은 애가 재빨리 뛰어나오고 있었다。발을 슬쩍 당기며 명치 끝을 올려붙였다。

욱!

애가 심장앞으로 고꾸라졌다。나는 그순간 표창을 연달아 세개 날렸다。

쪽발이한테 우리나라 처녀를 팔아먹는 꼴은 못본다



쉬익!

『모두 잡아라。』

내가 나서자 우리 애들이 재빨리 달려들어 응접실에 있는 애들을 꿇어앉혔다。

『재들부터 묶어라。』

경식이가 일본녀석과 큰애 두명을 묶었다。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집은 경식이가 피식 웃었다。

『이거 가짜예요。진짜처럼 만든 모조품예요。』

나는 권총을 받아들고 어이가 없어 웃고 말았다。

『쪽발이답다。』

장난감권총으로 일본녀석의 대갈통을 한대 갈겨 버렸다。녀석이 바닥으로 뒹굴며 죽는 시늉을 했다。

『여자애들 이상없나 보고 윤희부터 데려와라。애들 내보내면 안된다。애들 쪽쳐보구 보내든지 해야 한다。이층에서 못내려오게 해。』

애들이 이층으로 뛰어 올라갔다。나는 쓰러져 있는 큰애와 일본 녀석을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할말없나?』

『나, 일본사람이다。문부성 국제교류담당관이며 외교관으로 정정당당한 치외법권이 있다。너는 누구냐。』

일본 녀석이 명함을 꺼내 내 앞에 던지며 더듬거리는 일본식 액선트의 우리말을 했다。

『이 자식, 혓바닥이 반토막이냐? 어디 조회해 볼까? 너 가짜면 모가지를 비틀어도 괜찮지?』

『…。』

일본 녀석은 조회한다는 말에 고개를 수그렸다。나는 발길로 걷어차 버렸다。일본 녀석이 대자로 뻗어 누

갔다가 용케 도망나온 적도 있어

『너희들은 할말 없냐?』

『당신 누구요?』

큰애 가운데 신사복을 입은 사내가 물었다。

『다른 놈은 다 봐도 쪽발이한테 우리나라 처녀 팔아먹는 꼴은 못보는 놈이다。』

『형씨, 우리가 누군줄 알기나 하슈。』

『알지。뒷 배경이 좀 있는 삼류 깡패 자식들이란 것 쯤은。』

『형씨, 이러지말고 말로 합시다。보아하니 우리하고 감정있을 사람도 아닌 것 같소。우리 형님들이 섭섭지 않게 해줄 거요。』

신사복 차림의 사내가 이렇게 말하고 전화기에 손이 닿았다。나는 사정없이 걷어찼다。사내가 일본 녀석처럼 뻗어 누웠다。문이 열리고 윤희가 뛰어 들어왔다。

『이러면 안돼요。아무리 감정이 나더라도 뒤처리를 해야죠。』

『이런 새끼들을 그냥 두고…。』

정말 나는 뒤처리할 생각없이 뻗게 만들기만 했다。그 녀석들을 보는 순간 부터 참을 수가 없었다。

『너도 바른 말 않으면 목을 콱 아버릴 거다。네 형님인가 하는 자식들 어디 있냐? 빨리 대!』

『…。』

『못대겠나?』

『난 잘 몰라요。』

『그럼 누가 알아?』

『저 형하고 기사밖에 몰라요。』

『저 쪽발이가 기사냐?』

『예。』

『팔아먹은 여자들이 일본에 가서 무슨 짓하는지 아냐?』

『예。』

녀석은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대답했다。나는 볼 것없이 갈겨 버렸다。윤희와 경식이가 말렸지만 결국 녀석은 뻗어 누웠다。숨을 몰아쉬며 두 손을 비비고 있었다。

『이 개자식아。네 여동생이라면 팔아먹겠냐? 말해봐 이 새끼야。』

『형님, 살려주세요。제발 살려주세요。』

녀석은 결국 앞의 녀석들처럼 고꾸라져 일어나지 못했다。나는 혈을 짚어 신사복 차림의 녀석을 깨웠다。혼미한 상태였지만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있었다。

『솔직하게 말하면 살려주겠다。』

워낙 다구지게 다루니까 녀석은 무릎을 덜썩 꿇었다。

『형님, 살려만 주시면 무슨 말씀이고 다 드리겠읍니다。』

『그래, 넌 내가 안풀어주고 한시간만 두면 영원히 병신이 된다。평생 장가도 못가는 병신이다。』

『다 말씀 드릴께요。정말입니다。제발。』

『몇명이나 팔아먹고 얼마씩이나 받냐?』

『명수는 모릅니다。우린 시키는대로만 하니까요。돈도 그래요。형님들밖에 몰라요。바람잡는 애들한테 건당 이십만원씩 주는 것밖에요。』

『좋다。믿어보마。네 형님들이란 애들 어디 있냐?』

녀석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들었다。눈물이 괴어 있었다。

『우린 죽습니다, 형님。』

얼마나 무서운 집단인가를 알 것 같았다。그만큼 철저한 비밀조직이란 걸 알 수 있었다。

『내가 책임지고 살려주마。내가 장총찬이다。맹세하마。내 이름을 걸고。』

『예! 형님이요? 정말입니까?』

녀석은 그때서야 전후 사정을 상세하게 털어놓았다。아까 이미 비상단추를 눌러 왕초는 도주했을 거고 이곳 사정도 도청장치로 빤히 알고 있어서 일본으로 튀었을 거라고 말했다。

『그래서 날 밖으로 끌어냈냐?』

『그렇습니다。』

『그럼 일본의 조직과 이곳의 연결루트와 팔아먹은 여자들의 현지 주소등을 아는데까지 캐낼 수 있겠지?』

『형님, 전 맹세했읍니다。절 살려만 주시고 보호만 해주신다면 무슨 짓이고 다 할 겁니다。』

『내가 한번 맹세하면 지킨다。』

나는 팔려가기 직전의 여자들을 다 돌려보냈다。기사라는 일본 녀석도 풀어서 보냈다。말단 하수인이어서 전혀 쓸모가 없는 전달녀석이었다。

녀석은 비교적 상세하게 여자장사꾼들의 정체를 털어놓았다。일본 최대의 여자장사꾼 패들은 동남아와 유럽, 미주지역까지 손을 뻗쳐놓았고 우리나라 안에도 하수인 조직이 열개쯤 된다고 했다。더구나 이 비밀조직은 배반하기만 하면 죽음밖에 남는 게 없는 처절한 비밀결사이며 여자를 일본 안에서만 팔아먹는게 아니라 외국까지 원정판매까지 하는 집단이라고 했다。

『형님, 손 떼시는게 형님을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녀석의 충심이었다。나는 웃었다。

『내가 가겠다。그래서 뿌리를 빼고 오겠다。여기에 남아있는 비밀조직도 죄 캐가지고 오겠다。』

이건 내 맹세였다。신판 정신대조직의 일본 뿌리와 한국의 하수인 뿌리를 아예 뽑아버릴 생각이었다。

우리들은 밤 늦게까지 이번 작전의 성공을 자축하는 향연을 벌였다。신사복의 사내와 윤희도 끼어서 우리들의 승리를 만끽했다。

나는 펀치 형을 조르기로 결심했다。그래서 이 치사하고 이가 갈리는 신판 정신대 조직의 뿌리를 뽑아버릴 각오였다。

하나님。일본으로 가겠읍니다。두고 보십쇼。두 눈 똑바로 뜨고 보란말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頂上의 신문 한국일보

가요계 頂上 놓고 치열한 先頭다툼

금년도 王座는 누구에게?

가요계는 겨울이면 한바탕 열병을 앓는다. 연말 각단체가 시상하는 10대 가수및 가수왕 타이틀을 향한 불꽃튀는 경합이 그것이다. 최근 KBS와 MBC가 「KBS가요대상」과 「MBC 10대 가수왕」의 세부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제 가요계의 뜨거운' 한판 싸움은 절정에 와있는 느낌이다. 금년도 가요계의 왕좌는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까. 아직 한달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지만 지금까지의 활동을 기준으로 금년도 가요계 정상을 노리는 면면을 점검해 본다.

올 1년은 히트곡 드물었던 「부진한 한해」

여자가수부문은 混戰…윤시내·金蓮子등이

금년은 가요계 전반이 극히 부진했던 한해였다. 한 두명의 가수, 한 두곡의 히트곡을 제외하고는 뚜렷이 부각되는 가수도, 히트곡도 드물었다는 것이 1년을 결산하는 가요계의 중평이다. 따라서 그만그만한 가수들의 경합이 예년보다 훨씬 치열한 양상을 띠고 있다.

가장 혼전이 심한 부문은 여자가수부문. 남자에 비해 더욱 활동이 부진했던 관계로 여자가수 정상에 관한 한 좀처럼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우선 거론되는 이름은 尹시내·金蓮子·南宮玉粉·李銀河·玄淑등이다. 이중 南宮玉粉은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로 금년 상반기 뛰어난 활동을 보였으나 후속곡인 「꿈을 먹는 젊은이」가 전작에 빛이 가려지는 느낌을 숨길수 없어 다소 고전을 하고 있다.

1년을 통해 가장 꾸준한 인기를 얻었던 여자 가수는 아무래도 金蓮子. 金은 지난해와 금년에 연달아 발표한 가요 메들리가 기록적인 판매 실적을 올리는등 최고의 인기를 얻었음에 분명하다. 그러나 자신의 오리지널 히트곡이 없다는 결정적인 취약점 때문에 정상 한 발앞에서 멈칫거리는 형편. 뒤늦게나마 「진정인가요」등 오리지널곡을 발표, 빠른 시간내에 반응을 얻고 있으나·다소 시기가 늦었다는 느낌이다.

음악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가수가 尹시내. 「열애」「고목」「천년」등의 연속히트로 수년간 롱플라스를 유지하고 있었고, 금년에도 「DJ에게」를 히트시켜 일단 정상을 노릴수 있는 위치에 서있다.

가창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李銀河도 연초 다소 활동이 부진했으나 「네가 좋아」가 후반기로 넘어오면서 히트, 정상도전에 나서고 있다.

「포장마차」의 玄淑도 정상을 노리지만 불화에서 역시 미흡한 감을 숨길수 없다. 10대가수에 들수 있으면 성공적.

혜은이·河春花의 두 이름도 정상을 향한 대열에서 빼놓을 수는 없다. 그러나 둘다 지난해부터 사업·결혼등의 사정으로 1년여의 공백을 가졌고 금년 후반에서야 활동을 재개한만큼 일단 정상도전은 무리로 보인다.

그외 「다정한 눈빛으로」의 桂銀淑, 「타인의 계절」의 韓敬愛, 「왜 나는」의 李貞姬, 「연락선」의 鄭在恩, 「어느 소녀의 사랑이야기」「슬픈 약속」의 閔海京, 「나는 못가네」의 朴允榮등이 다크호스로 지목되고 있으나 정상에는 미흡한 형편.

특히 閔海京은 10대가수까지는 무난하리라는 예상이었 ●나「어느 소녀의…」가 표절시비에 휘싸이면서 주춤, 고전중이고 鄭在恩도 후반기의 활동이 상반기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어 어렵게 경합하고 있다.

남자는 趙容弼·羅勳兒·李龍이 선두 그룹에

신인답게 두드러진 활동을 편 新人은 없어

남자의 경우는 3명의 뚜렷한 선두주자와 그뒤를 좇는 단독주자, 10대가수 마지막 한 자리를 노리는 후속그룹의 3그룹으로 확연히 구별이 된다.

선두그룹은 趙容弼·羅勳兒·李龍의 3명. 「창밖의 여자」이후 한국가요계의 독보적인 존재로 군림해온 趙容弼은 금년에도 초반「미워 미워 미워」의 인기가 지난해로부터 이어져 계속 독주했고, 야심적인 4집에서 「못찾겠다 꾀꼬리」를 연 10주째 히트차트의 톱에 올리는등, 후반기에 이르기까지 잠시의 여백도 없는 활동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趙容弼이 지난해처럼 편안한 정상을 차지하기는 어려운 것이 금년의 사정이다. 羅勳兒라는 거목이 활동을 재개하면서 쉽사리 정상권에 올라섰고 李龍이라는 뜻하지 않은 신인이 등장, 거칠것 없는 히트가도를 달려버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컴백한 羅勳兒는 「대동강 편지」에 이어 「울긴 왜 울어」「잡초」등 여러곡을 한꺼번에 대량히트시키며 당당한 정상의 가수로 복귀하고 있다. 또 지난해 「바람이려오」로 젊은층의 주목을 받기시작한 李龍이 금년 최고 히트곡으로 지목되고 있는 「잊혀진 계절」로 선풍을 일으키며 정상에 도전하고있다.

趙容弼이 관록으로 보나 음악성으로 보나 선두주자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들 둘의 추격은 추월의 위협마저도 내포하고 있다.

한편 羅勳兒는 『후배들과 등위경합을 벌이는 것은 나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못하다』는 뜻을 밝히며 해외공연등의 이유를 들어 연말을 전후해서 국내를 비울 계획인것으로 전해졌다.

2위그룹에서 혼자 달리고 있는 주자는 금년도 MBC 세계 가요제에서 금상을 받았던 全永祿. 全은 「애원」「꼬끄」등의 히트곡으로 워낙 두꺼운 정상에는 미치지 못하나 10대가수에는 안착할 전망이다.

나머지 한 자리를 둘러싼 후보들의 경합이 치열하다. 우선 거론되는 이름은 「여인아」의 李泰元, 「부산 갈매기」의 文成在, 「사랑은 정에 울고」의 咸重兒, 「슬픈 얼굴 짓지 말아요」의 宋昌植등. 이들은 송골매·산울림등 그룹을 중창부문으로 돌린다는 전제하에서 치열한 경합을 보이고있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의 송골매, 「내게 사랑은 너무 써」「청춘」의 산울팀은 곡의 히트정도로는 당연히 10대가수 대열이나 그룹이라는 특수성때문에 중창부문에서 서로 경합할 전망이다.

신인부문은 사실 상을 받을만큼 활동이 두드러진 신인이 없었다고 보는것이 옳다. 물론 세샘에서 독립한 權聖姬를 신인으로 간주한다면 權이 신인상을 받을 공산이 크지만 權을 제외하고는 신인다운 신인을 찾기 어렵다.

「백지로 보낸 편지」의 金太正도 연초 기대를 모았으나 3개월여의 공백을 가지면서 그나마 수상대상에서는 밀려나고 있는 형편.

다만 여가수로 혜민·羅英·진보라·남자가수로 전영진·설운도등의 이름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있다.

◇윤시내

◇金蓮子

◇南宮玉粉

◇李銀河

◇趙容弼

◇羅勳兒

◇李 龍

◇全永祿

<가을 이야기>

착각

김선현 (토월문우회)

구독신청
월~토
☎ 533-2361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讀者 페이지

■投稿환영

<차라리 시들지 않는 조화이고 싶어라>
노처녀의 일기중에서.
용산 한산도 (土月文友會)

<이룰수 없는 사랑>
불량품제조회사 아들과 소비자고발센터 딸.

<요즘의 군자>
교통사고로 죽는다.
원철연 (유머작가)

★<아무래도 밑진것 같다>
그녀에게 총각때 꿔준 돈 그녀와 결혼해서 받았다.
申古山 (서울동대문구면목1동91의31·3통3반)

<등잔밑이 어둡다>
요즘은 전등 위가 어둡다.
박하식 (부산시동래구온천1동144의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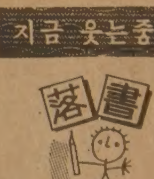
<직업적 노이로제>
한낮에도 큰 기침소리만 나면 잘 놀란다.
—어느 좀도둑—
하도사 (한국낙서회)

<우리집의 안방극장>
전날밤에 센 부부싸움 구경.

<천만 다행이다>
이 살벌한 도심속에서 아직도 저 불량배들을 감상할수 있으니.
尹亞 (윤아두)

<청빈과 탐욕의 차이>
나물 먹고 물 마시고
뇌물 먹고 콩밥 먹고.
한가혜 (土月文友會)

지금 웃는중



<여배우의 대화>
A『애, 요즘 겹치기 출연 때문에 의상비 많이 들었다.』
B『아냐, 옷 입는 장면은 얼마 없어서…』
박종율 (해외취업자·안양시안양6동 475의7 4통1반)

피처마운드 (서울 용산구 보광동204의72)

<사람 웃기네>
술을 팔면서 과음은 몸에 해롭습니다.
담배를 팔면서 지나친 흡연은 몸에 해롭습니다.
—주당골초—
하동훈 (한국낙서회·서울 강동구 마천2동 349의1)

<재벌들의 공통어>
또 다시 사회로 환원시킨다.

<약 좋다 남용 말고>
벌받어도 참고 살자.
—드링크제 말썽 이후—
하만수 (한국낙서회·서울강동구 마천2동349의1)

<술집에 불났다 하면>
고고족이 많이 죽는다.
GO GO (가라 가라) 였기 때문이겠다.
원철연

<하마의 하품>
큰입록 보니 바가지깨나 긁혔다.
—공처가—
한춘기 (신림동·모범예비군)

韓心海 (청계천4가 흥일미싱)

<82 개해의 스타>
바둑이.
—거짓이었지만—
꽃다발 (화양동사무소입구 골목안 OB시음장·낙서전시장)

<사나이 스무살>
「자원」이 되는 나이다.

<어느 서민의 꿈>
월동 걱정 없게 개구리나 뱀처럼 겨울잠이라도 잘수 있었으면…。
깜상 (한국 낙서회)

<속상해 죽겠다>
배가 아파서…。
—위장병 환자—
이일재 (전국 낙서회·1021 S. Kingsley DR#6 L.A. (A. 90006 U.S.A)

◇알 림

☆이번주의 최우수작은 <아무래도 밑진것 같다>입니다. 申古山씨! 축하합니다.
이번주의 상품역시 등산·레저장비전문메이커인 한라스포츠(☎ 0925)가 제공하는 고급 코헤르입니다.
☆피카소황소씨가 15일부터 대공원쪽 화양동사무소입구 골목안 시음장에서 「피카소황소 그림엽서 낙서전」을 열고 있읍니다. <ㅅ>

詩 <나그네>

조 규 찬

긴—
여로는
끝 없는 무정。

해
바다로 숨어 갔어도
갯바람 따라
가는
나그네。

(충남 부여군 내산면 율암리 382)

Turtle Mother of Pearl 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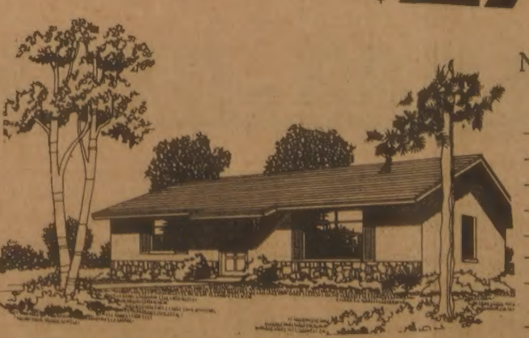
각종 자개제품이 클링턴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읍니다. 뚜벅 뚜벅 끈기있고 천천히, 열심히, 꾸준히, 성실하게 여러분의 은혜에 보답코저 걷고 있읍니다.

취급품목 : 각종 자개제품 일절
생산부 : ○커피테이블
○보석함
○구절판
○꽃 병
○자개벽걸이
○문 갑
○애기장 등등…소품부터 대품에 이르기까지
수선부 : 각종자개제품 수선일체 (Insurance Work)

☆ 특별주문 환영합니다 ☆
공장 : 361 Clinton St. Tor. Ont. M6G 2Y7
☎ : (416)530-4364, 536-8018

거북이나전칠기공예사
대표 이 정 석

FLORIDA 2BD.RM. BUNGALOW
$ 27,900
NEAR CLEARWATE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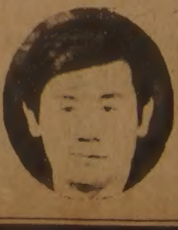


—20% DOWN
—¼ ACRE LOT INCLUDED
—CENTRAL AIR & HEATING
—MASONRY CONSTRUCTION
—10 MIN. TO BEACH & GOLF
—1 HR. TO DISNEY WORLD
—MANY OTHER WORLD FAMOUS ATTRACTIONS NEARBY
—HOME INSPECTION TOUR AVAILABLE

RECOMMEND AS A PROPERTY INVESTMENT !
—RENTAL & MAINTENANCE PROGRAM AVAILABLE
—RENTAL INCOME OFFSETS MORTGAGE PAYMENT
FOR MORE DETAILS, PLEASE CONTACT :
Tel 243-0522(To 2PM) 661-3124(After 2PM)
PETER YLEE, P.ENG(이영용)
BUK S. CHANG, P.ENG(장북섭)
KYU-YUL, CHO(조규열)
DONG-CHUN, KIM(김동천)
YOUNG-WOON, AHN(안영운)
YONG-CHUL, KWON(권용철)
SANG ROCK INC./SPRING WOOD PROPERTIES INC.
3461 Dixie Rd. Suite 503 Mississauga ☎ : 629-1242 9 : 00AM-9 : 00PM

꿈도매상

▲모든 채소 종류
▲각종과일
▲화분
▲Cut Flower
▲Hanging Plant



BROADWAY
FRUIT MARKET
437 CARLAW AVE.
대표 : 곽 덕열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셉빙,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광고문의 533-2361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693 Bloor St. W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홍콩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757-6334 Mr.최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그라나다(GRANADA)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갈비는 맛좋고 기름이 적은 삼복식품으로….
★겨울김장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맛이 최고인 삼복김치로 대용하세요.
★일요일(오후4시부터) 쇼핑은 25불 할인받는 삼복식품으로 오세요.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 내 장 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1주에 $15로 귀하가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수 있읍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불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2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시간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Professional Instruction 운전지도
온타리오 안전기구와 정부보증
전화 : 626-5715 Mr. McKenzie

의 류 수 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Professional Inventory
◉모든 Store인수, 인계 일절처리.
Inventory Service of Canada
전화 : 665-8300 Nick.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인 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New Toronto)
전화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Rust Proofing. 37 Primrose Ave. Toronto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 Mr. 탐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타 자 기

공병우 한영타자기 캐나다 총대리점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 있음.
전화 : 245-0995 김영수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이경복회계사 C.G.A.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533-2361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THE KOREA TIMES Toronto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밤일할 경험있는 캐쉬어 구함.
밤12시-아침7시까지, 1주에 50시간.
전화 : 884-2747

도넛숍에서 파트타임 일하실 여자분 구함.
오후7시~밤12시(일~금요일) Victoria Pk. & Steeles
전화 : 499-4459, 299-1431

칸추리스타일 도넛숍에서 주말에 일하실 파트타임 헬퍼 구함.(Keele & Finch 지역)
전화 : 630-9413

레스토랑 맡아서 경영하실분 구함.
전화: 859-4554

그라나다 식당 웨이트레스 구함
전화 : 923-3060

그로서리 스토아 메니저 구함
약간의 보증금 요함. 젊은 부부 환영
스카보로 지역. 전화 : 265-9270

경험있는 헬퍼 구함.
Mississauga Lorne Park 지역
전화 : 278-8101

주방 여자 헬퍼 구함.(50세 미만)
전화 : 537-0432

가정일 돌봐주실분 구함.
전화 : 762-1572

도넛츠가게에서 밤일하실 여자분 구함.
다운타운 지역
전화 : 861-1521, 222-3877

혼자 독립하여 성공할수 있는 최대의 기회!
활동적인 사람에게는 더많은 수입을 올릴수 있음
연락처 : 463-0798

◉경험있는 호텔 청소하실분 구함(11PM~7AM)
◉경험있는 수퍼바이저 약간명 구함.
전화 : 630-2450

Koto일본음식점 Kitchen Helper 구함.(윈치지하철서 10분거리)
인터뷰 : 11월27일(토) 12월4일(토) 오후2시~5시.
5304 Yonge St. 전화 : 221-1621, 826-7676

입주하셔서 애기 돌봐 주실분 구함
(5세 여아) 전화 : 533-3545

동반자 구함
약회사 메니저임. 독일태생. 캐나다에서 교육 받았음.
22세~35세 정도되는 여성으로써, 교육받고, 세련되고,
진실된 한국여성을 만나고 싶음. 친구나 결혼용의가 있는분.
전화 : 1-727-6490 (Gert) 콜렉트·콜로 걸어주기 바람.

구 직

베이비시터 원하시는 분 연락 바랍니다.
전화 : 920-0930 Mrs.김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기 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 (Mrs. Adroe) 636 Vaughan Rd. #1(at Oakwood St.)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금호실업(박수웅)	224-1622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51-8833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21-9144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88 올림픽후원회	623-3674
승공문화협회	444-3658

개 인 지 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심껏 지도. 초보자 환영.
전화: 243-7752(저녁7시 이후) Jennifer Hong

양장, 재단 재봉 개인지도(윈치 & 베더스트)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재봉은 하지만 재단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피아노 개인지도
MARKHAM RD.
전화 : 439-4948

매 매

Bakery 매매 또는 동업자
구합니다.
전화 : 961-9780 오전10시~오후7시

조그만 버라이어티스토아 매매.
스카보로 지역. Lottario 머신있음. 아스킹: $15,000+스탁
전화 : 266-5715

〈81년도 Dodge 스테이숀 왜곤〉
4기통, 25,000Km.
전화 : 535-4441 Mr.김

빌딩 매매 또는 렌트합니다.
아무 사업이나 적당하고 좋은 위치, 좋은 가격.
982 Pape Ave. 전화 : 422-5029 Mike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리스 : 5년
전화 : 535-6838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25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set $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도넛숍 매매.
서쪽끝에 빠쁘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
주매상: $3,500이상 보장. 리스: 13년. 아스킹: $119,000
주인은 레바논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꼭 팔아야함.
도나스 만드는 것은 주인이 추레인 시킴.
전화: 596-8170(B). 447-4585(R) Andrew Lee.

잘 꾸며진 약국 매매(토론토). 3,000Sq.ft.
우체국 달림. 온타리오 약국면허를 필요로 함.
전화 : 781-2560

빌딩달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좋은 위치. 116 Dawes Rd.(Victoria Pk)
전화 : 691-3333 Gus or Frank

부동산 투자. Detached 벽돌사무실 빌딩.
7,800 sq. fit. 년매상: $50,000정도
Hollywood Real Estate Ltd. 746-4360 John Ritacca.

성업중인 그로서리스토아 급매. 주매상: $6,500~$7,000
아스킹: $69,000+스탁. 렌트: $650
오타와지역. 전화 : (613)-238-3837

Baskin Robin 아이스크림 가게 매매.
Metro 바로 북쪽. 좋은 매상.
자세한 문의는 JOE DI LILLO(조·디·릴로)
전화 : 746-4360
Hollywood Real Estate Ltd.

▲스토아와 아파트 매매.
아스킹 : $97,000. 2층 벽돌건물. Garage와 파킹.
$47,500 몰개지. 12% 끝 1985. 바쁘고 좋은 지역.
▲Motel(23개 방). Burlington.코너에 위치하고
넓이는 120'X250'. 잘 꾸며지고, 좋은 컨디션.
아스킹 $400,000.
DORIS BURDA 763-5555
R. Cholkan & Co. Ltd.

5 일에 $ 15로
원하시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읍니다.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개인, 소구룹, 단체.
문의 : 742-4208 김유수 (출장·주말지도)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4 Bed Rm. House전체를 세놓고자 함(Brampton지역)
2Bath Rm. Family Rm. Fire Place차고등.학교와
Shopping Plaza근처에 있음. 전화: 593-8943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퍼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제인·팍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성 순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도 서 판 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윈치)
전화 : 746-3458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 532-7094(B) 1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컴퓨터 식자 서비스 : 533-2361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얄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 279-7774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일체.)
(B)449-8644~5 (R)286-1548
★이현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대일 오디오 비데오
T.V.. 전축 스테레오. 각종 전자제품
전화 : 270-0679, 279-3174 임문호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